

14일 Market Index			
↑ 코스피	6977.94	↑ 코스닥	864.65
	(+164.60)		(+3.28)
↑ 금리	3.796	↓ 환율	1412.25
	(+0.015)		(-6.05)

초과수익 내고도 상장폐지 잇따라 액티브ETF ‘상관계수 0.7%’ 족쇄

타임폴리오 ETF 1년 수익 36.06%
상관계수 0.68%로 내일 상장폐지
지난달도 상관계수 미달 4종 상폐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규제
업계, 개선 필요성 공감대 형성”

높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상관계수’
규제를 충족하지 못해 상장 폐지되는 액
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사례가 잇따르
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은 TIME(타임)미국배당다우존스
액티브 ETF가 상관계수 미달로 오는 18일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19일 상장 폐지된단
고 예고했다. 지난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액티브 ETF 4종이 상관계수 미달로 무더
기 상장 폐지 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상관계수란 말 그대로 얼마나 상관이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다. 1에 가까울
수록 같은 방향, 0은 관련 없음, -1은 반
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현재 액

티브 ETF는 3개월 이상 상관계수 0.7 미
만이 지속되면 상장 폐지된다. 패시브 E
TF(상관계수 요건 0.9)보다는 운용사 재
량을 쥐 초과수익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도, 해당 액티브 ETF가 상품 정체성에서
벗어나 운용돼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
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문제는 최근 상장 폐지되는 액티브 E
TF들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
는 최근 1년 수익률(14일 기준)이
36.06%로 비교지수보다 9.42%포인트 초
과 성과를 달성했다. 앞서 상장 폐지된 한
투운용의 액티브 ETF 4종도 마찬가지
다. 특히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는 비
교지수 대비 30%포인트 가까운 초과성
과를 내기도 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성장주 비중을
줄이고 자수 복제율을 높였지만 14일까
지 기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은 “상관계수 요건 미달을 확인
한 즉시 초과수익 포지션 비중을 축소하

는 등 조치에 나섰다”며 “기초지수의 일평
균 변동폭이 매우 낮아 과거의 저장관 구
간이 3개월 안에 완전히 희석되기에는 시
간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높은 운용 성과를 거뒀음에도 상관계
수 미달로 상장 폐지되는 액티브 ETF가
늘어나면서 운용사와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김성훈 DS자산운용 대표는 지난달 기
자간담회에서 “상관계수 규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며 “업
계에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운용사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보수적
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
소형 운용사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대형
사와 경쟁이 어려운 중소형 운용사들은 액
티브 ETF로 차별화된 운용
전략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호남의 선택’ 민주당 당대표에 김민석

이재명정부 뒷받침 호소가 ‘주효’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지속 강조
전당대회 이후 갈등 해결 속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뽑는 8·17 전
당대회에서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대의
원·권리당원 투표(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한 결과, 정청래·송영길 후
보를 따돌리고 당 대표에 선출됐다. 김 후
보는 민주당의 텃밭이자 전체 권리당원
의 3분의1이 있는 호남 경선에서 크게 이
기며 사실상 ‘승기’를 잡았는데, 이는 호
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는 당정관계를 구축하겠
다고 공언한 김 후보의 전략이 통한 것으
로 풀이된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7
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진 제
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김민석 후
보가 임기 2년의 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른바 ‘명청대전’으
로 치러졌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
한 당정일치를 강조하며 친명(친이재명)
계를 대리했고, 전임 당 대표인 정 후보는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통합
을 외치며 민주당의 전통 코어 지지층을
친청(친정청래)계로 결집시켰다.
승부를 가른 곳은 민주당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호남이었다. 호남의 지역 순

회 경선에서 김 후보와 정 후보는 엇치락
뒤치락하며 호각세를 보였으나, 민주당
의 전통 지지층이 밀집한 호남에서 김 후
보가 정 후보를 24.89%포인트(p) 차로 앞
서며 승기를 잡았다. 호남 순회경선이 끝
나자 두 후보의 누적 득표율 차는 14.07%
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김 후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이 포함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중요
성을 강조하며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성
공시킬 것”이라고 했고, 전북 새만금의
투자 유치의 필요성을 띄우며 “미스터 새
만금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후보는 전당대회 당일 정견발
표에서 “해방 100년, 민주당 100년, 대한
민국 황금시대를 열 수 있는데, 그 중심
기관자인 당정관계가 흔들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릴까봐 절박하다”며 “제가
처음 국회의원 나왔던 92년 이후 34년 동
안 어떤 선거도 이번처럼 절박하지 않았
다. 우리 당과 정부와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호남의 중요성을 미리 간파하고
사실상 호남에 상주하며 유권자를 만난
가운데 호남 당심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
한 신뢰를 재확인했고, 지역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당권 주자를 지
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6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빌게이츠, 총수들 면담… SMR 협력 구체화

최태원 회장과 원전개발 사업 점검
SK이노, 美 케머러 1호기 등 확대
HD현대, 美 SMR 진출기반 넓혀

국내 원전 기업들이 테라파워의 차세
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을 중심으
로 사업 개발과 기자재 공급, 상용화 협력
을 확대하고 있다. 초기 프로젝트에서 확
보한 제작 실적을 후속 상용 사업의 수주
와 매출로 연결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입
지를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지
난 14일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
의 방한을 계기로 나트륨 SMR 사업 협력
을 구체화했다. SK이노베이션은 테라파
워와 국내외 사업 개발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고 HD현대와 현대건설은 원자로
상용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산에너지빌
리티는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 1호기의 핵
심 기자재 제작 계약을 맺었다.
◆최태원·빌 게이츠, 1년 새 두 번째 회동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빌 게이츠 의장
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삼정동 선혜원
에서 만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원전
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대 방안을 점검했
다. 지난해 8월 SMR 기술 개발과 상용화
방안을 논의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HD현대

양측의 협력은 2022년 SK이노베이션
과 SK(株)가 총 2억5000만달러를 공동 투
자해 2대 주주에 오르면서 시작했다. 이
번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지분 투자 중심
의 관계를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확대했다.
SK이노베이션은 케머러 1호기와 후속
상용 프로젝트 참여를 늘리고 국내에서
는 ‘K-나트륨 SMR’ 사업모델과 공급망
을 구체화한다.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
시아 등에서는 테라파워와 신규 프로
젝트를 공동 개발한다.
나트륨 SMR은 SK그룹의 에너지·AI
사업과도 연계한다. SK이노베이션의 L
NG·전력사업과 SK온의 배터리·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결합하고 SK하이닉스

의 AI 반도체, SK텔레콤의 데이터센터·
AI 인프라까지 연결해 그룹 차원의 ‘AI
풀스택’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HD현대·두산에너지빌리티, 美 SMR
공급망 공략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빌 게이츠 의
장,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
(CEO),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도 지
난 14일 만나 육상 원자로 상용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월 합의한 테라파워의
원자로 기술과 HD현대의 주기기 제조 역
량, 현대건설의 설계·조달·시공(EPC) 경
험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방안을 점검했다.
HD현대는 2024년 12월 원동형 원자로
용기를 수주한 데 이어 올해 5월 주기기
핵심 설비 제작·공급의 우선협상대상자
로 선정됐다. 후속 발주에 대응해 연간 2
~3기의 원자로 용기를 공급할 생산체계
도 구축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원자로 보호용기와 지
지구조물, 내부구조물 등 3종을 케머러 1호
기에 공급한다. HD현대가 원자로 용기를
맡은 데 이어 두산에너지빌리티도 주요 구조
물 제작에 참여하면서 국내 기
업이 공급하는 기자재 품목이
늘어났다. (3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文 “與 전당대회 보며 큰 우려…단결은 승리, 분
열은 곧 패배”
▲‘5·18 재조명 포럼’ 이진숙 당 윤리위에 제소
“중징계 내려야”
/사진 뉴시스

▲대통령 지지율 43.0% ‘취임 후 최저’…5주째
하락
▲추석 연휴 5년간 화재 2077건…비상구 폐쇄 집
중 단속

▲거제 ‘물폭탄’ 1명 사망·4명 부상…신고 838
건
▲한국 모범이라더니…“美 한미훈련 축소, 기존
태도와 대조적”

CJ그룹, 'K라이프스타일' 승부수 2028년 북미시장 매출 12조 목표

‘K라이프스타일 비전’ 발표회 개최
이재현 회장 글로벌 사업 지침 반영
식품·뷰티 등 사업 시너지 극대화

CJ그룹이 식품·콘텐츠·뷰티 등 그룹 내 핵심 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2028년 북미 시장에서 매출 12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전격적인 비전을 선포했다. 단순 개별 브랜드 수출을 넘어, 미주 소비자의 일상에 ‘K라이프스타일’을 뿌리내리게 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현지 시간) CJ그룹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힐튼 글렌데일(Hilton Glendale)에서 ‘글로벌 K라이프스타일 비전’ 발표회를 개최하고, 북미 시장에서의 중장기 성장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발

표는 지난 5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미국 현지 사업장을 찾아 주문했던 “모든 사업을 K라이프스타일로 연결해 미국 소비자의 일상 속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지침을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가시화한 것이다.

◆ “글로벌 K라이프스타일 리더로”

이재현 회장은 14일부터 사흘간 ‘KCON LA 2026’과 ‘올리브영 페스타’,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돕는 ‘K-COLLECTION’ 부스를 연속 방문하며 북미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의 미국 재방문으로, 현지 젊은 세대가 K컬처를 소비하는 현장을 챙기는 등 글로벌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장에서 이재현 회장은 “30년 전 ‘문화가 미래(산업)’라는 믿음에서 CJ의 문화

사업이 출발했듯이, 이제 콘텐츠·푸드·뷰티 등으로 세계인의 일상을 채우는 ‘글로벌 K라이프스타일 리더’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비전의 핵심은 ‘K팬덤의 일상 소비화’다. 미국은 글로벌 GDP의 약 26%, 가계소비의 31%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다. 최근 질과(Z+Alpha)세대를 중심으로 K팝·K드라마 등 콘텐츠 선호가 K푸드, K뷰티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실제 CJ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글로벌 K컬처 영향력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1000명 중 30%가 K푸드·K뷰티·K팝·K콘텐츠 등 K카테고리 전반을 모두 소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2개 이상 경험한 비율은 75%에 달했으며, K외식과 K콘텐츠, K팝의 실제 소비 경험



CJ 이재현 회장이 14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KCON LA 2026을 방문해 올리브영 페스타를 둘러보고 있다.

도는 전년 대비 각각 12~13%p 이상 급증했다.

◆ 8년 만에 매출 10배 ‘폭풍 성장’

CJ그룹의 북미 사업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1995년 드림웍스 투자와 2012년 KCON 개최로 포문을 연 CJ는 DSC(2018년), 슈완스(2019년), 피프스시즌(2021년) 등 과감한 M&A와 투자를 이어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북미 누적 투자액은 9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북미 매출은 8조 원을 돌파, 2017년(약 8000억 원) 대비 8년 만에 10배 이상(연평균 성장률 약 33%)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다.

CJ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K라이프스타일 2단계 성장 전략’을 가동한다. 기존 성장 모델이 브랜드별 현지화 및 생산·유통 인프라 확장에 집중했다면, 2단계 전략은 식품·콘텐츠·뷰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습관적·반복적 소비’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간담회에 참석한 허민회 CJ(株)대표는 “CJ는 30년 이상 미국 시장에 지속 투자해 왔으며 식품·콘텐츠·뷰티 분야의 독보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춘 유일한 기업”이라며 “K웨이브 인기를 K라이프스타일 경험으로 잇는 생태계를 구축해 북

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식 CJ 아메리카 대표 역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K푸드와 K뷰티의 습관적·반복적 소비로 확장하고, 이것이 다시 오프라인 문화 경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비비고’ 영토 확대 ‘올영’ 교두보 확립

사업별 세부 전략도 한층 정교해졌다. CJ제일제당은 아시안 푸드 시장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한 ‘비비고’를 앞세워 주류(Mainstream) 시장을 다각도로 공략한다. 냉동식품 시장에서 거둔 성공 공식을 상온 보관(Shelf Stable) 제품군으로 확대해 브랜드 외연을 넓힌다.

페데리코 아레올라 CJ슈완스 아시안 식품BU장은 “비비고의 북미 성과는 K푸드가 미국 소비자의 일상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만두에 이어 핫반과 치킨, 김스낵, 김치, K소스 등 글로벌 전략 제품(GSP)을 적극 육성해 비비고를 세계 어느 식탁에서나 즐기는 진정한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역설했다.

오프라인 접점 확대 전략도 탄력을 받는다. 14~16일 미국 LA 컨벤션센터와 크립토타컴 아레나에서 열린 ‘KCON LA 2026’은 K팝을 매개로 K푸드와 K뷰티를 전파하는 허브 역할을 다했다.

특히 올해 미국에서 처음 열린 ‘올리브영 페스타’는 현지 고객들에게 K뷰티 브랜드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플랫폼으로 눈길을 끌었다. 국내 중소·인디뷰티 브랜드들이 현지 시장에 동반 진출해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판로를 열어주며 ‘K브랜드 글로벌 교두보’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는 평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제12회

무안황토갯벌축제

갯벌이 살아있다

with 무안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념식

2026. 8. 29.(토) ~ 9. 6.(일) 주말 집중운영

무안황토갯벌랜드 일원

The 12th Muan Red clay Tidal flat Festival

무안갯벌 람방다리

무안군/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



CJ 허민회 대표가 15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CJ 글로벌 K-라이프스타일 비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CJ그룹

“상관계수 의무 폐지, 원칙적으로 바람직”

≫ 1면 ‘초과수익 내고도...’서 계속

상장폐지일까지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이 오는 21일 지급된다.

주식 커뮤니티에서 투자자 A씨는 “액티브 ETF가 조금만 다르게 운용해도 상장폐지를 걱정해야 한다면 사실상 패시브처럼 운용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액티브를 투자할 때는 더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상관계수’ 제약 문제는 미국·캐나다·호주·아일랜드·룩셈부르크에서 볼 수 없다. 단지 포트폴리오 공시와 차익거래 체계,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통해 투자자를 보

호한다.

김재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액티브 ETF는 특정 지수의 방향성을 추종하지 않는다”며 “상관계수 유지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제자리 상태다.

시장에서는 제도 개편 전까지는 상관계수 기준이나 미달 기간을 완화하고, 운용 전략 이탈 여부를 공시와 위험지표로 함께 판단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부동산 세제개편 후폭풍 확산… 종부세 반대 7000건 육박

종부세 개정안 입법의견 6934건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확대 반발
장기보유특별공제 철회 청원 등장
국회서 양도세 완화 법안 잇단 발의
정부 개정안 내달 초 국회 제출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의 후폭풍이 더 거세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보름 만에 700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 왔다. 국회에서도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 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

1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6934건의 입법의견이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시 14억원, 비거주시 9억원으로 조정했다. 기존 12억원에서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이 바뀌게 된다. 거주



서울 시내 한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세제 개편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시스

1주택자라면 기본공제가 더 많아졌지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하한을 기존 60%에서 70%로 올린 데다 세 부담 상한 비율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하면서 종부세 대상자라면 대부분 세 부담이 더 커졌다.

그간 1주택자는 보호했던 것과 달리 비거주를 이유로 세금부담을 높이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고, 부부 공동명의나 고령자 등도 불리해졌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한 의견 제출자는 “비거주 1주택자는 대부분 직장 이전, 자녀의 학업,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이며, 결코 투기세력이 아니다”라며 “1주택 부부공동명의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 역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2971건의 입법의견이 제출된 상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현행 장기보유특

별공제 제도가 주택의 경우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뀌 공제금액 한도를 신설한다. 2027년까지는 유예를 두지만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는 10억원으로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뿐 아니라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투기와 무관한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최대 4배까지 가중시키고, 이미 경과한 보유·거주 기간에 사후 적용되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며, 물가상승분에 과세하는 한편 매물 동결을 유발해 정부의 정책 목적에도 역행한다”며 공제액 한도를 신설하는 조항의 철회 또는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회에서도 세법개정안을 보완하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간 낸 재산세와 종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장기 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발표하며 서민들의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교세 기준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억원 기준은 지난 2008년에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된 이후 17년간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박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양도세를 이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고 기존 대비 규모가 작고 가격도 낮은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를 일부 미뤄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 1면 ‘빌게이츠…’서 계속

세계 소비 식어도 AI는 뜨겁다… 韓 ICT 수출 140% 급증

美·日 소비 둔화 中 신규대출 순감
7월 ICT 수출 533억6000만달러
반도체 178.8% 늘어 77% 차지

미국의 상품 소비와 일본 내수가 주춤하고 중국에서는 가계와 기업의 신규 은행차입이 줄었지만 대한민국의 지난 7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1년 전보다 140.6% 급증했다. 세계 수요의 전면적인 회복보다 가계의 소비·신용과 인공지능(AI) 서버반도체 수요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 美·日 소비 주춤·中 신규대출 순감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3%, 연율로는 1.1% 증가했다. 순수출이 성장률을 0.5%포인트(p) 높은 반면 내수는 0.2%p 끌어 내렸다. 민간소비는 사실상 상 보합에 그쳤고 설비투자는 1.2% 감소했다. 수출이 0.5% 늘었지만 수입이 1.5% 줄어 순수출 기여도가 커진 만큼 소비가 이끈 성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미국의 상품 소비 모멘텀도 약해졌다. 미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7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월간 소비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중국에서는 7월 신규 위안화 대출이 3400억위안 순감했다. 중국 인민은행의 누적 통계를 토대로 계산하면 가계대출이 4603억위안, 기업대출이 1300억위안 각각 줄었다. 7월이 통상 대출 비수기인 데다 6월 대출 집행이 앞당겨진 영향도 있다.

반면 AI 인프라 투자는 가계의 최종소비와 다른 사이클을 타고 있다.

◆ ICT 수출 77%가 반도체

산업부에 따르면 7월 한국의 ICT 수출은 533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40.6% 증가했다. 전체 수출의 54.0%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410억

2000만달러로 178.8% 늘어 ICT 수출의 76.9%를 차지했다. AI 서버에 탑재되는 SSD 수출도 500.2% 급증했다.

지역별 수지도 최종소비보다 AI 공급망의 영향이 컸음을 보여준다. 중국·홍콩 행 ICT 수출은 194.7% 늘었고 이 가운데 반도체 비중이 89.1%에 달했다.

수출 호조의 폭도 고르지 않았다. 중소·중견기업의 ICT 수출은 1.8% 증가하는 데 그쳤고 이들 기업의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11.0% 감소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나트륨 원자로 8기 개발

◆메타 최대 8기 추진… 후속 공급망 진입 주목

케머러 1호기는 테라파워가 처음 건설하는 나트륨 원자로다.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SFR)에 용융염 기반 열에너지저장 시스템(TES)을 결합해 기본 출력 345MW를 최대 500MW까지 높일 수 있다. 올해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건설 허가를 받은 데 이어 4월 원자로 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케머러 1호기에 이어 메타와 미국에서 최대 8기의 나트륨 원자로를 개발한다. 첫 원자로 공급은 이르면 2032년 시작되며 전체 발전용량은 2.8GW다.

/원관희 기자 wkh@

All Good POHANG

농촌의 미래를 바꾸는 청년의 힘,

포항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포항
더 나은 내일

po-hang 포항시

2030년까지 최대 98조 공급... 국민성장펀드로 자금 물꼬



①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7월 경기 용인 신한은행 블루캠퍼스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영포럼'에서 강평을 하고 있다. ② 지난 2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③ 지난 6월 12일 서울 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그냥드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④ 지난 3월 29일 인천 송도 '신한스퀘어브릿지 인천'에서 진행된 오픈이노베이션 11기 및 소셜 오픈이노베이션 3기 선발 기업 발대식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②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은 미래 성장산업 육성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두 축으로 총 110조원 규모의 금융 공급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국가 전략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금리대출과 맞춤형 여신을 제공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17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그룹은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본격화하고 있다. 혁신기업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을 늘리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병행해 경제 전반의 성장 기반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 구축

신한금융은 생산적 금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의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지난해 9월 '생산적 금융 PMO'를 신설한 것을 시작으로 11월에는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위원장을 맡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로 조직을 확대했다. 이어 12월에는 생산적 금융 전략을 통합적으로 추진·관리하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출범
9개 자회사와 사업 발굴 등 협업
발행어음 기반 투자·대출 확대

국민성장펀드 10조, 대출 75조
국가 전략사업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 취약계층에 최대 17조 공급
금융소외 고객 '같이성장' 모토

추진단은 그룹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사무국장을 맡는 추진 사무국을 중심으로 투자·대출·재무건전성·포용금융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생산적 금융에 참여하는 9개 자회사 총괄 그룹장과 협업해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하고, 프로젝트별 금융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

주요 자회사도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여신그룹 내 '생산포용금융부'를 신설하고 관련 제도 설계부터 운영, 리스크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을 기반으로 한 '종합금융운용부'를 통해 초혁신경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확대한다. 신한캐피탈도 상품·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해 투자 부문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 2030년까지 최대 98조 공급

신한금융은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총 93조~9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국민성장펀드 투자와 그룹 자체 투자·대출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



서울 세종대로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을 투자하고, 그룹 자체적으로 10조~15조원 규모의 투자 자금을 조성한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기 투자부터 코스닥 상장 및 기업공개(Pre-IPO) 단계까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 지원에는 72조~75조원을 투입한다. 은행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성장지원 추진단'을 운영해 부동산 관련 자금 비중을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에너지·지역 인프라 등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 개발펀드 등 약 1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프로젝트와 지역 인프라 개선 사업 등에도 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취약계층에 최대 17조 포용금융

신한금융은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와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조~17조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도 공급한다.

포용적 금융은 저소득·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한다. 신한금융은 민생경제 회복과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이자 부담 완화와 채무조정, 상생금융 확대에 나선다.

우선 금융소외 고객을 대상으로는 '같이성장'을 모토로 향후 5년간 15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전용상품을 지원한다. 신한미소금융재단에는 10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정책 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성실상환자의 자산 형성도 지원한다.

고금리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와 저금리 상품 대환을 지원하고, 저축은행의 고금리 여신을 신한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업그레이드 브링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연체 차주는 '기업성공프로그램'과 '기업재도약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

이와 함께 '그냥드림' 사업 규모를 기존 4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층의 지역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40년 만기 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도 도입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1960년대 한 기업가의 말입니다

저희의 희망은
그리고 희망은
도저히 아티팩트이다
은근의 표정은
소비자 디자인
소비자 디자인
저희의 희망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바뀌어 있다

“김민석이 시대정신”, “정청래가 개혁”… 대전 달군 당권전

르포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

김민석 측, 당정 중점사업 완수 강조
정청래 측, 불리한 선거제 설계 지적
당 통합 당부하는 목소리도 많아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앞둔 17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 행사장 앞은 당정일치로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김민석 후보 지지자와, 멈추지 않는 개혁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정청래 후보 지지자의 응원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행사장인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홀 앞 아치형 구조물 안에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 지지자들이 파켓을 들고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김 후보 지지자 중엔 유난히 최고위원 당선권에 있는 김용 후보를 지지하는 이도 많이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장으로 보낸 화환이 등장하자 김 후보 지지자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김 후보를 응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치형 구조물 길 건너편에는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천막이 있었는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를 상징하는 노란색 바람개비를 든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고 무리 지어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앞둔 17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홀 앞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왼쪽)과 김민석 후보 지지자들(오른쪽)이 응원전을 벌이고 있다. /박태홍 기자·박경수 수습기자

춤을 추며 전당대회 분위기를 돋구었다.

김민석 후보 지지자들은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 김 후보가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더 낫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전했다.

곽 모씨는 “김민석 후보가 시대정신이고, 정청래 후보는 시대정신에 어긋난다”며 “정 후보 측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정청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에서 올라왔다는 이 모씨는 “우리들이 봤을 때 정 후보가 1년 동안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너무 안 좋게 보인다”며 “김민석 대표가 되면 당청간 화합하고 대통령이 꿈꾸는 메가 프로젝트 등을 다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합동연설회장에서 기자와 만났던 진상문씨는 이날 대전에서도 만나 “(호남에서 김 후보가 정 후보를 크게 이기자) 그 때 다들 울었다”며 “이제 김 후보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 하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진 씨는 “민주당이 옛날처럼 하나로 뭉쳐서 이 대통령은 뒷받침해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은 강력한 개혁당 대표로 일할 사람은 평생 민주당을 위해 몸을 바친 정 후보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마포구에서 온 청년 이경수 씨는 정 후보 지지 이유에 대해 “다른 후보들보다 개혁 당 대표로서 당을 잘 이끌어 갈 것”이라며 “어느 상황에서나 당을 위해 몸을 바쳐 일할 사람”이라고 했다. 이 씨는 “이 대통령과 이제 발 맞춰서 밀려있던 일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이뤄져서 민주진영의 통합도 빠르게 실시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빨리 처리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전당대회가 유독 선호투표제 등 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의견도 많았다.

충남 서산에서 온 황규돈 씨는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를 어긴 것이고, 김용 최

고위원 후보가 나온 것도 이를 어긴 것”이라며 “왜 일반 당원들에게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기들은 편하게 적용하냐”라고 반문했다. 황 씨는 “당헌·당규는 (당의) 헌법이다. 왜 노사모가 (전당대회) 나왔을까. 내부 경선이니까 한 사람을 적으로 규정해서 몰아내는 것은 안 된다. 대통령도 당무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는 각 후보들이 그간 쌓아왔던 감정을 풀고 민생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송영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명선 씨는 “서로가 단합해서 당이 100년 이상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당원이 일심동체가 되면 좋겠다”며 “서로가 헐뜯지 않고 서로가 위로하고 도와주고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는 김일호 씨는 “인천에서 행사장에 일찍 왔는데, 아침부터 (지지자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라며 “이런 모습이 일반 시민들이 정치를 회피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보는데, 너는 김민석, 나는 정청래, 나는 송영길”하면서 어울어지며 놀면 되는데, 자꾸 너 김민석이냐, 너 정청래냐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전=박태홍 기자·박경수 수습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4년 중임제’ 꺼낸李…野 ‘연임 포석’ 반발

“임기 단축해서라도 개헌” 언급 국힘, 연임 포기 선언 촉구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개헌 이슈는 지지율 폭락을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며 연임 포기 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개헌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헌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달 28일 “헌정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이 대통령

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의장 측은 개헌안에 해당 조항을 넣을지 여부를 언급했고,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과는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여권의 해명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의회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며 개헌을 언급한 것이 지난 13일 알려졌다. 골프 회동에 참석했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이에 야당은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4일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지금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겠다.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같은날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개헌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항쟁 헌법 전문 명기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총리 추천권·인사권 일부 국회 이양 ▲대통령 4년 중

임·연임제로 변형해 중간평가 가능 ▲지방자치 및 국민 기본권 강화를 언급하며 “이런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다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재차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결국은 본인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라며 “4년 중임제로 가겠다는 건 5년짜리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야당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 여야 간 개헌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

인다. 개헌이 실제로 성사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찬성’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개헌 의제를 꺼낸 의도를 의심하는 모양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개헌 제의에 대해 “지금 저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민생이지, 주식 그리고 부동산과 같은 이슈지, 이 대통령 사법방탄을 위한 연임을 위한 개헌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꺼낸 개헌 이슈는 지지율 폭락을 감추기 위한 물타기 카드”라며 “이 대통령이 연임을 앓았다고 선언해도, 개헌 이슈가 모든 민생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

靑,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북미 대화 기대”

“구체 사항 공조해 나갈 것”

청와대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북미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있는 북미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

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사항에 대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고,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북한의 감정은과의 매우 좋은 내 관계에 비춰볼때, 저는 한국과의 연합군사연습에 미국이 참여하기로 오래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 첫날인 17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차량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다”고 적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정례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UFS가 미국에 비용 부담을 안기는 데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예진 기자

민주당, ‘친명·친청’ 갈등 봉합 과제

>> 1면 ‘호남의 선택’서 계속

또한 대표 재임 시절 당정관계가 계속해서 어긋났다는 지적을 받은 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거대 지역 공약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호남의 당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대표를 연임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별다른 당 내 경쟁자 없이 각각 77.7%와 85.4%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과 달리, 김 후보는 간신히 당 대표에 선출되며 당 내 친명 세력에 대한 거부감이 이전보다 상당히 확산됐단 점도 감지된다.

전당대회 이후 김 후보가 갈등을 이어

온 친명계와 친청계 사이를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분당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김 후보는 선거 초반부터 정 후보를 향해 당 대표 시절 ‘자기정치의 폐해’를 저질렀다며 ‘반명(반이재명)’ 세력으로 프레임 씌워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지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 측을 겨냥해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을 띄우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정 후보도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돕다가 탈당한 김 후보의 이력을 문제삼으며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고 지적해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박태홍 기자



2026년 SK의 생각입니다

AI시대불안과기대는
도저히이아티며이다
은니표짓는이다
소비다디치트
노아구구트스
불안은기대도
비극수이다

SK는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2주새 8% ‘금값 켑충’… 비트코인은 ‘제자리’

美 금리인상 전망에 금값 재상승
비트코인, 이달 0.35% 상승 그쳐

작년 알트코인 급락사태에 더해
클래리티법 지연도 코인에 악재
당분간 비트코인값 반등 어려워

금값이 최근 2주 동안 8% 넘게 올랐지만 한 때 ‘디지털 금’으로 불렸던 비트코인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7일 뉴욕선물거래소(NYMEX)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거래된 12월 인도물 금 선물의 종가는 1트로이온스(31.1g)당 4437.3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7월 말의 온스당 4107달러와 비교해 2주 만에 약 8%(330.3달러) 올랐다. 국제 금값은 주말 휴장을 마친 뒤 개장한 17일 거래에서도 개장 직후 약 30달러 상승하며 거래를 시작했다.

◆美 금리동결 전망…금값 ‘재점화’

앞서 국제 금값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전망에 지난 1월 29일 온스당 5586.2달러까지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말 중동사태 발발에 따른 국제 원유 가격 상승과 미국 내 물가 상승 등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영향으로 금리 전망이 인상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면서, 국제 금값도 지난 7월에는 온스당 4000달러 수준까지 급락했다.

최근 국제 금값이 재상승하는 것은 미국 내 고용지표 악화과 인플레이션 둔화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약화하고 금리 동결 전망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미 노동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7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3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동월 전망치인 8만3000명 증가를 크게 하회했다. 앞서 발표한 5월·6월 고용도 각

각 12만9000명에서 6만3000명으로, 5만7000명에서 2만명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 전망이 빠르게 악화했다.

이어 지난 12일(현지시간) 발표된 7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을 기록했다. 6월의 3.5%보다 0.1%포인트(p) 낮아진 수준으로, 금리 인상 전망을 이끌었던 지난 4월·5월의 가파른 인플레이션율이 주춤했다.

◆‘디지털 금’ 엿말…비트코인 악세

국제 금값이 미 연준의 금리 동결 전망에 힘입어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한때 ‘디지털 금’으로 불렸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제자리다. 가상자산 시장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7일 자정 기준 1BTC당 6만3120달러에 거래됐는데, 이는 이달 초의 6만2899달러와 비교해 0.35% 상승에 그친 것이다.

비트코인은 한때 복제가 어렵고 발행 수량이 제한돼 있다는 특성에 주목해 ‘디지털 금’으로 불렸다. 비트코인의 가격도 안전자산인 금처럼 거시경제를 따라 움직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급락 사태 이후 가상자산 전반의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비트코인의 수요도 좀

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가상자산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입법 지연도 비트코인 가격에 악재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법안으로, 미 공화당은 8월을 입법 목표로 제시했으나 미 민주당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입법이 불발됐다. 공화당은 9월을 새 입법 목표로 제시했지만, 11월 초 중간선거가 예정된 만큼 입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간 내에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내에 자금 유입이 불충분하고, 규제 완화 기대감도 후퇴해서다.

금융분석 전문가인 울프리처치의 린스버그 전략가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소폭 반등했지만, 이는 올해 초 나타났던 상승세보다 훨씬 약하고 가격은 여전히 완전한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다”며 “현재로는 단기·중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강세를 뒷받침할 만한 논리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행사에 참석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오른쪽)과 송현석 인천광역시 정책수석(왼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인천광역시 2500억 지역 금융지원

동반성장 업무협약 등 3건 협약

하나은행이 인천광역시와 손잡고 서민·청년·소상공인 지원부터 미래 전략산업과 혁신기업 육성까지 아우르는 지역 금융지원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지난 14일 인천광역시와 ▲동반성장 업무협약 ▲ABC+E(인공지능, 바이오, 콘텐츠, 문화, 에너지) 미래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인천 유니콘 펀드 출자 업무협약 등 총 3건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하나은행은 청년 주거안정과 취업 준비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과 성실상환 취약자주 원금 상환, 장기연체자 재기 지원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추가 특별출연해 약 3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에 기존 1650억원에 833억원을 추가해 총 2483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입지·교통·학군 ‘3박자’… “신안산선 개통시 교통 더 편리”

부동산 현장 르포

용산 ‘씨밋 클라비온’ 견본주택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일원에 문을 연 ‘씨밋 클라비온’ 견본주택. 내부에 마련된 유닛은 전용 59㎡ D타입 한 개로,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아기를 업고 온 부부부터 중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이 견본주택을 찾아 유닛을 둘러보고 분양 상담을 받고 있었다.

씨밋 클라비온은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신길뉴타운 10구역 재건축 단지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90 일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총 8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주택형은 전용 44~84㎡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44~59㎡ 7개 타입, 17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약 1만 6000가구가 조성되는 신길뉴타운의 첫 ‘씨밋’ 브랜드 단지다.

단지의 가장 큰 강점은 교통이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7호선을 이용하면 가산디지털단지와 논현, 강남구청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더블 역세권을 갖추게 된다. 여의도까지는 3정거장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인근 대림역과 보라매역을 통해 2호선과 신림선도 이용할 수 있다.

대림초와 대영초·중·고, 영신고 등 학교가 많다. 신길근린공원과 보라매공원,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등 녹지·체육시설도 가깝다. 타임스퀘어와 더현대 서울, 여의도 IFC몰 등 영등포·여의도 생활권도 누릴 수 있다.

견본주택에는 타워형 구조인 전용 59㎡ D타입이 마련됐다. 관람객들은 수납



견본주택에 마련된 ‘씨밋 클라비온’ 단지 모형도.

대우건설 시공 신길 10구역 재건축 지하 4~최고 29층, 8개동, 812가구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역세권 단지

전용 59㎡ D, 거실·주방 시야 트여 면적 대비 내부 널찍해 ‘만족’ 평가 분양가 11억9840만~18억6630만원

장이나 창문을 열어보고 관계자에게 읍션 사항을 물어보며 유닛을 꼼꼼하게 살폈다. 전용 59㎡라는 면적 대비 내부가 널찍해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면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씨밋’만의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다.

거실과 주방 사이 시야가 트여 있어 공간이 비교적 넓게 느껴졌다. 거실 전면에는 대형 창을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다. 안방도 침대와 가구를 배치하고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편이었다.

전용 59㎡ D타입에는 인방 드레스룸과 파우더장, 불박이장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유상옵션을 선택하면 드레스룸에 슬라이딩 도어와 조명, 시스템 선반을 추가할 수 있다.

커뮤니티시설은 지하에 집중 배치된

다. 분양 관계자는 “800여 가구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커뮤니티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며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을 조성해 가구당 약 1.5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신풍역이 바로 앞에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유닛 내부를 둘러보며 시설과 옵션을 꼼꼼하게 확인하던 오형섭씨(49)는 “씨밋이 적용되는 단지라 관심을 갖고 찾아왔다”며 “전용 59㎡치고 넓어 보이고 밝고니 공간도 충분하다. 마감제도 좋은 제품을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아트월 히든도어나 방음 특화 같은 차별화된 설계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보기에는 특별한 점이 눈에 띄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분양가는 입지를 고려하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봤다. 그는 “현재 거주하는 동대문구도 아파트 가격이 15억원 정도”라며 “신길뉴타운의 입지를 고려하면 분양가가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자녀와 손녀를 데리고 견본주택을 찾은 이순씨(70)는 단지가 들어서는 입지를 높게 평가했다. 신풍역 인근에서 12년째 살고 있는 이씨는 “강남 접근성이 좋고 주



‘씨밋 클라비온’ 견본주택 전용 59㎡D형 거실.

/성채리 수습기자

분양 캘린더

신길 씨밋클라비온 등 주간 3788가구 분양

8월 셋째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378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2469가구가.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씨밋클라비온’, 서울 중구 중림동 ‘충정로역자이르네’,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두산위브더제니스부천’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대우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원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에 재건축한 ‘씨밋클라비온’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면적 44~84㎡, 총 8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4~59㎡, 17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다. 신풍역은 신안산선 개통(2027년 목표)이 예정돼 있다.

모텔하우스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쌍용더플래티넘서대문’,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역서호스타힐스여의재(1단지)’, 인천 서해구 검암동 ‘검암역푸르지오프라يم뉴(공공분양)’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쌍용더플래티넘서대문’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3개동, 17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6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내부순환로, 연희로 등을 통해 서울 도심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성채리 수습기자 cr56@

르노코리아, 타이어·정비 등 차량 보유 전 과정 만족도 높인다

그랑 콜레오스·필랑트 경쟁력 강화
신차용 타이어 개발 등 완성도 높여
CMA 플랫폼 기반 정비 접근성 개선

르노코리아가 신차의 주행 성능뿐 아니라 차량 구매 이후의 유지관리 경험까지 개선하며 상품 경쟁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랑 콜레오스'와 '필랑트'를 중심으로 정비 편의성을 높이고 소모품 비용을 낮추는 한편, 신차용(OE) 타이어 개발 단계부터 승차감과 핸들링을 세밀하게 조율하고 있다.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고객이 차량을 보유하는 전 과정에서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 필랑트, 준대형 크로스오버의 새로운 선택지… 타이어 개발 최대 2년

르노코리아의 준대형 크로스오버 '필랑트'가 효율성과 승차감을 앞세워 국내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넥센타이어가 OE(신차용) 타이어 개발 단계에서 주행 성능을 세밀하게 다듬으며 차량의 완성도를 높였다.

경기도 화성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서비스센터까지 약 300km를 필랑트로 주행한 결과, 가장 눈에 띈 것은 연료 효율이었다. 250마력 하이브리드 E-T



지난 12일 화성 KATRI에 위치한 넥센타이어 주행평가팀 연구동에서 르노코리아의 필랑트 차량 타이어를 점검하고 있다.

ech 파워트레인인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섞인 실주행에서 20.4km/L의 연비를 기록했다. 공인 복합연비 15.1km/L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또 실제 도로에서는 차체 크기에서 오는 존재감이 분명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차선을 유지해 장거리 주행에서 부담을 덜었다.

승차감과 정숙성 역시 강점이다. 전 트림에 적용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ANC)과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노면 소음과 충격을 효과적으로 걸러냈다. 3개의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openR 파노라마 스크린'과 LLM 기반 AI 음성 어시스턴트 '에이닷 오토', ChatGPT 기

반 차량 매뉴얼 서비스 '팁스' 등 편의사양도 갖췄다.

차량의 주행 감각을 완성하는데 타이어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12일 화성 KATRI에서 만난 넥센타이어 주행평가팀은 필랑트 OE 타이어의 R&H(Ride & Handling) 성능을 점검하고 있었다. 연구원들은 최대 180km/h까지 속도를 높이며 조향 반응과 차체 거동을 확인하고, 차선 변경과 슬라럼 주행에서 롤링, 복원력, 전후륜 그립 등을 평가했다.

계측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 평가와 전문 평가원의 감성 평가를 병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넥센타이어는 기본적인 완성도



지난 13일 르노코리아 남광주 서비스센터에서 정비사가 차량 관리 등을 설명하고 있다.

를 확보한 뒤에도 소음·진동, 제동, 핸들링과 같은 요소의 미세한 차이를 줄이는데 1년 반 이상을 투입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OE 타이어는 소음·진동, 제동, 핸들링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며 "필랑트 타이어는 연비와 승차감, 핸들링의 균형에 최적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비 편의성 높이고 유지비 부담 낮춰

르노코리아의 변화는 정비 현장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13일 방문한 남광주서비스센터에서 필랑트의 에어컨 필터 교체 작업을 살펴본 결과 조수석 글러브박스 안쪽 나사 2개만 풀면 필터를 꺼낼 수 있

는 구조였다. 센터 관계자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면 소비자가 직접 교체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랑 콜레오스와 필랑트는 볼보자동차와 공동 개발한 CM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정비 접근성을 높여 작업 시간을 줄이고 공임 부담도 낮추겠다는 취지다. 남광주서비스센터에 따르면 동일한 엔진오일 기준 그랑 콜레오스와 필랑트의 엔진오일·필터 교환 비용은 르노 아르카나보다 약 30% 저렴하다.

2022년 9월 문을 연 남광주서비스센터는 호남·제주권 12개 신차 판매 거점을 지원하는 허브 정비 사업소다. 16명의 프론트·정비 인력이 근무하며 리프트 8대와 판금·도색 설비를 갖췄다. 정비진 평균 경력은 20년 이상이며 코텍(CoTech)과 고전압 전기차 정비 자격 보유자도 근무한다.

르노코리아는 신차의 성능뿐 아니라 타이어 개발과 정비 서비스까지 고객 경험의 범주로 묶고 있다. 가격과 성능을 넘어 유지비와 정비 편의성이 자동차 구매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 같은 변화가 향후 판매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화성·광주=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삼성·SK, 美 중심 투자… 글로벌 입지 '흔들'

美, 반도체 기업 현지생산 압박
中 업체, 메모리 시장 몸집 키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역별 매출 구조는 엇갈렸지만 신규 투자는 양사 모두 미국에 쏠려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매출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삼성전자는 중국이 최대 시장이지만 공장은 나란히 미국에 짓는다. 미국의 수출통제로 중국 내 증설이 제한된 데다 미국 정부가 현지 생산 확대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양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미국 매출은 84조5648억원으로 전체 매출 131조8950억원의 64.1%를 차지했다. 단일 고객 매출은 17조6087억원과 17조1874억원으로 두 곳에서 34조원을 넘겼다.

반면 삼성전자는 중국 매출이 88조6004억원으로 미국(70조6466억원)을 앞섰다. 전년 동기 대비 207.7% 늘어난 규모로, 메모리 가격 상승과 수요 회복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삼성전자

는 지역별 매출을 부문별로 구분하지 않아 반도체와 완제품이 함께 잡힌다.

이처럼 양사의 매출 구조는 다르지만 신규 투자는 미국에 쏠려 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7일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파엿에서 작공식을 연다. 38억7000만달러(약 5조5000억원)를 투입해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와 연구개발 시설을 짓는다. 가동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추가 투자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앞서 전력과 용수, 인력 여건이 갖춰지면 메모리 생산공장 건설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앞세운다. 텍사스주 테일러 1공장을 연내 가동하고 이후 2개소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동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공정과 장비, 수율 인력을 현지에 파견해왔다. 2공장은 연말 공사 착수를 준비 중이며 2030년 양산이 목표다.

중국 매출이 늘었지만 현지 생산시설

을 증설하거나 첨단 공정으로 전환하는 데는 규제가 걸림돌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다렌 공장을 검증된최종사용자(VEU) 명단에서 제외하는 규칙을 발표했고 12월 31일 발효됐다.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가 제한되는 사이 현지 업체는 몸집을 키우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YMTC는 2분기 낸드 출하량 점유율 14%를 기록해 키옥시아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 300단 이상 제품 개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한국 반도체 기업을 향해 현지 생산 확대 요구도 이어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니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뉴욕주 클레이타운에서 열린 마이크로 공장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며 "마이크론이 앞장서고 있으니 경쟁사들도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아이폰18 가격인상 예고… 부품업체 셈법 복잡

LG이노텍·LGD, 사업 다각화 속도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아이폰18 시리즈의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애플과의 거래 비중이 높은 국내 부품사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18 프로 256GB 모델의 부품원가(BOM)가 전작보다 약 3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큰 원인은 메모리 가격이다. 아이폰 프로 256GB 모델의 전체 부품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 약 10%에서 올해 3분기 약 3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가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인상 기류는 국내 부품사에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는 애플로 추정되는 단일 고객사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아이폰 판매량에 따라 실적이 영향을 받는 구조다.

다만 아이폰18의 가격 상승이 곧바로 국내 부품사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따른다. 애플이

가격 인상 폭을 낮추기 위해 마진을 일부 포기하면서 출하량을 방어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올해 신제품이 프로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국내 부품사는 향후 아이폰 판매량 변화가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고부가제품과 신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LG이노텍은 애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F-C-BGA를 비롯한 AI 반도체 기반 사업을 키우는 한편 휴머노이드 로봇 등 퍼지컬 AI 기기에 적용되는 비전센싱 모듈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OLED 사업 영역을 모바일에서 IT와 차량용으로 넓히고 있다. 올해 상반기 모니터·노트북·태블릿용 패널 매출 비중은 36.1%, 차량용 패널은 10.4%를 기록했다. 회사는 저전력·슬림화 등 차세대 OLED 기술 개발과 함께 게이밍 모니터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제품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매디슨 황 엔비디아 이사, LG 로보틱스 거점 찾는다

〈젠슨 황 장녀〉

양사 실무진 회동… 사업 협력 가속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장녀인 매디슨 황 엔비디아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 이사(사진)가 LG전자의 로보틱스 핵심 거점을 찾는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젠슨 황 CEO가 전략적 사업 협력에 뜻을 모은 지 닷새 만에 실무진 간 만남이 이어지면서 양사의 퍼지컬 인공지능(AI)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황 수석 이사는 오



는 18일 서울 서초구 LG전자 양재 연구개발(R&D) 캠퍼스에 구축 중인 '데이터 팩토리'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LG전자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로보틱스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구 회장과 젠슨 황 CEO의 회동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 회장은 지난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를 찾아 젠슨 황 CEO와 만나 퍼지컬 AI를 비롯한 전략적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황 수석 이사는 2020년 엔비디아에 합류한 이후 옴니버스와 로보틱스 등 퍼지컬 AI 관련 제품 마케팅을 담당하며 관련 생태계 확대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LG전자와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분야 협력도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현정 기자

삼성 “‘콜 오브 듀티’ 신작, 생생하게 즐기세요”

모니터·스피커 등 게이밍 제품 최적화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기 게임 '콜 오브 듀티' 신작에 자사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하며 게이밍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1인칭 슈팅 게임(FPS) 신작 '콜 오브 듀티 : 모던 워페어 4'의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신작 개발 초기부터 액티비

전 블리자드와 협력해 TV와 모니터, 사운드바, Wi-Fi 스피커 등 주요 게이밍 제품을 게임 플레이에 최적화했다. 특히 양사는 신작에 32:9 '슈퍼 울트라와이드' 화면 비율을 구현했다. 삼성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G9' 사용자는 넓은 화면을 활용해 전장을 보다 폭넓게 볼 수 있다. 삼성전자의 'HDR10+ 게이밍' 기술도 적용됐다. 어두운 실내 전투부터 밝은 야외 전장까지 색감과 명암을 정교하게 표현해 게임의 몰입감을 높인다.

/차현정 기자

“한국 산업의 AI 엔진 꿈꾼다”… 온톨로지 세계시장 도전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탁 정 수 인포시스 대표

비정형 데이터 구조화 기술로 승부
도면 분석 1주일씩 30분으로 단축
제조·금융·공공 프로젝트 20건 넘어
엑시옴·델타플로우 앞세워 확대
지난해 매출 33억 올해 150억 목표
내년 250억 바라보며 고속 성장

‘한국의팔란티어’를 넘어 ‘세계의팔란티어’를 노리고 있는 토종 AI 강소기업이 있다.

전직원 50명도 안되는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작은 회사가 미국의 글로벌 기업 팔란티어, 엔트로픽을 경쟁자라고 당당히 말한다. 닥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래서 미래가 더 궁금해진다.

2018년 간판을 올린 벤처기업 인포시스(INFOCZ). 탁정수 대표는 IBM에서 보안서비스 본부장 등을 역임하다 그해 인포시스를 창업했다.

“IT를 가장 잘 하는 사람이 보안을 한다(웃음). 해커가 대표적이다. 우리는 국내에 생성형 AI가 본격 도입되기에 앞서



탁정수 인포시스 대표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3년 정도 빠르게 온톨로지를 시작했다.”

온톨로지(Ontology). 철학에서 ‘존재에 관한 학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온톨로지가 요즘엔 LLM(Large Language Model)을 중심으로 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AI 세상에서 온톨로지는 무엇일까.

개념과 관계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온톨로지는 ‘세상의 문법’, ‘규칙과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회사의 비어있

는 조직도가 온톨로지라면 이름을 채워넣은 완성된 조직도가 지식 그래프다.

생성형AI가 판치는 시대에 이를 활용해 기업의 ‘디지털 두뇌’를 만들기위해선 온톨로지와 지식 그래프가 매우 중요하다.

탁 대표는 “우리나라에는 온톨로지 전문회사가 20~30개 정도 있다. 그중에서 우리가 온톨로지를 가장 잘 하는 회사라고 자부한다. 그래야 LLM의 할루시네이

션(환각)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온톨로지→지식 그래프→디지털 트윈→AI 에이전트(Agent) 순이다. 그런데 인포시스는 ‘에이전트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의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 관련 특허만 벌써 10건이 넘었다.

탁 대표는 “기업은 ERP, MES, CRM, PLM 등 핵심 정형·비정형 데이터가 각각 다른 시스템에 물리적으로 흩어져있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때문에 고성능 AI 모델도 이를 맥락적으로 읽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의 전문영역은 난이도가 가장 높은 도면(P&ID), 회의·고객 대화 녹취, 이미지, 동영상, 자유 텍스트 등 기업의 완전 비정형 데이터를 정확하게 빠르게 다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포시스가 구축한 온톨로지 기술을 활용하면 기업의 비정형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데 걸리던 3~4개월의 시간을 1~2주로 단축할 수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래서 탁 대표는 회사를 ‘AI를 활용한 비정형 데이터 구조화의 강자’라고도 부른다.

현재 인포시스는 AI LLM을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온톨로지 솔루션 ‘엑시옴(Axiom)’, 비정형 도면 인식 솔루션

‘델타플로우(DeltaFlow)’를 출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엑시옴의 경우 정형 데이터는 100%, 비정형 문서는 95%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도면을 읽는 AI’로 불리는 델타플로우는 95%의 자동인식률을 통해 분석 시간을 75% 가량 줄여준다.

탁 대표는 “반도체, 에너지, 제조, 플랜트 같은 핵심 산업군은 수십년간 쌓인 설계도면, 공정 데이터, 운영 매뉴얼이 방대하다. 기존 기술로는 도면 한장을 인식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다. 델타플로우를 사용하면 30분이면 충분하다. 인포시스는 제조, 플랜트, 금융, 공공분야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술을 검증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A전자회사, B통신회사, C인터넷은행, D증권, E연구원 등 성공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 건수만 20건이 넘는다.

지난해 33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인포시스는 올해 150억원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1년새 5배 가까이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내년엔 250억원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 ‘한국 산업의 AI 엔진’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시작한 인포시스의 성장은 이제 막 시동이 걸렸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국내선 유류할증료 두 달 만에 다시 오른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편도 2만900원
8월보다 4400원 올라 저점의 3.2배
중동발 고유가 여파에 부담 지속

두 달 연속 하락했던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9월 다시 오른다. 중동 전쟁으로 급등했던 유류할증료가 지난 6월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올해 저점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9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2만900원으로 책정했다. 8월 1만6500원보다 4400원, 26.7% 오른 금액이다.

올해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중동 전쟁 전후로 큰 폭의 변동을 보였다. 대한항공 기준 3월 6600원까지 떨어졌지만 전쟁 여파가 반영되기 시작한 5월에는 3만4100원으로 급등했다.

급등 배경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대한항공 보잉 777-300ER 항공기. /대한항공

유가 상승이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으로 국제 원유와 항공유 가격이 상승했다.

전쟁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유류할증료에 반영됐다.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3월 1~31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을 토대로 산정됐다. 이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할증료는 4월 7700원에서 5월 3만4100원으로 2만6400원 뛰었다.

상승세는 6월 3만5200원으로 올해 최고점을 찍은 뒤 꺾였다. 이후 두 달 연속

내렸지만 9월 다시 2만900원으로 반등했다. 9월 할증료는 6월 고점보다 40.6% 낮지만 올해 저점인 3월과 비교하면 3.2배 수준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운임과 별도로 부과되며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왕복 항공권에는 편도 기준 할증료가 두 차례 부가돼 인상 시 소비자 부담도 커진다. 발권 이후 할증료가 변동해도 차액을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지 않는다.

국제선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월 현행 체계상 최고 수준인 33단계까지 오른 뒤 6월 27단계, 7월 19단계, 8월 14단계로 세 달 연속 하락했다.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인천~런던·로스앤젤레스 등이 22만5600원, 인천~뉴욕 등은 25만9200원이 적용된다. 지난 3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승혁 기자 sh95@

HD현대일렉, 420kV 친환경 차단기 개발

국내 최초·세계 세 번째 개발 성공
온난화지수 기존 절연가스보다 98%↓

HD현대일렉트릭이 국내 최초이자 세계 세 번째로 420킬로볼트(kV)급 친환경 고압차단기를 개발하며 유럽 초고압 송전망 시장 진입에 필요한 핵심 제품을 확보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420kV급 육불화황 무사용 고압차단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압차단기는 송전망에서 고장 전류를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번 제품은 기존 절연가스인 육불화황 대신 C₄ 혼합가스를 적용했다. C₄ 혼합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GWP)는 육불화황보다 약 98% 낮다.

420kV급 친환경 고압차단기는 국가 기간망에 적용되는 초고압 전력기다. 대체 절연가스의 특성에 맞춰 절연·차단 구

조를 새롭게 설계하고 극한 조건에서도 장기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해야 해 개발 난도가 높다.

HD현대일렉트릭은 2021년 170kV급을 시작으로 145kV와 72.5kV급 육불화황 무사용 고압차단기를 잇달아 독자 개발했다. 이번 420kV급 제품 개발로 주요 전압대의 친환경 고압차단기 제품군을 확대했다. 420kV급 고압차단기가 적용되는 400kV급 송전망은 유럽 주요 송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전력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420kV급 제품은 유럽 초고압 전력인프라 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 요건으로 꼽힌다.

유럽연합(EU)의 불소계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전력망 투자가 맞물리면서 유럽 육불화황 무사용 고압차단기 시장은 2030년 약 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관희 기자 wkh@

무더위·습한 날씨에 제습기 판매 40% 증가

청호나이스 상반기 판매량 늘어
실속형 ‘에어드로우’로 시장 공략

무더위와 습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제습기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17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자사의 제습기 상반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하며 성장했다.

실내 습도 관리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의 영향으로 제습기를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제습기는 실내 습도를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습기가 발생하기 쉬운 공간을 관

리하고 실내 쾌적 건조를 돕는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청호나이스는 이러한 제습기 수요에 맞춰 올해 5월 실속형 제습기 ‘에어드로우’를 선보이며 제습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청호나이스 제습기 ‘에어드로우’는 27℃, 습도 60% 기준 일 최대 제습량 15.5L의 제습 성능을 갖췄다. 물탱크 용량은 3.8L로 물을 자주 비워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드레스룸, 세탁실, 침실 등 습기 관리가 필요한 실내 공간에서 장시간 활용할 수 있다.

에너지소비효율은 1등급으로 제습기 사용 시간이 늘어날 때에도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中企 200개사 인천공항서 글로벌 여행객 만난다

한유원, 10월12일까지 두달간 운영
정책면세점 입점 200개 기업 참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지난 14일부터 두달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소기업제품 전용 팝업 스토어 ‘K-BRAND POP-UP STORE’(사진)를 연다.

17일 한유원에 따르면 이번 팝업 스토어는 인천공항을 찾은 국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품 홍보를 돕고 중소기업 전용 면세판매장인 정책면세점

(판판듀티프리)’ 방문을 늘려 매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10월 12일까지 여는 팝업스토어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구역H 체크인카운터 부근에 마련했다.

팝업스토어는 정책면세점 입점기업 제품으로 구성했고 15일마다 50개사씩 총 4회에 걸쳐 참여기업과 제품을 바꿔 운영기간 동안 총 200개 중소기업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문객은 시식, 시음, 시연 행사 등을 통해 한류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뷰티, K-푸드 등 여러 카테고리의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

한유원 이태식 대표는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누적방한객이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한류와 함께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고 있다. 여름 휴가기간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팝업스토어가 정책 면세점 매장 방문을 활성화하고 입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실질적 구매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해외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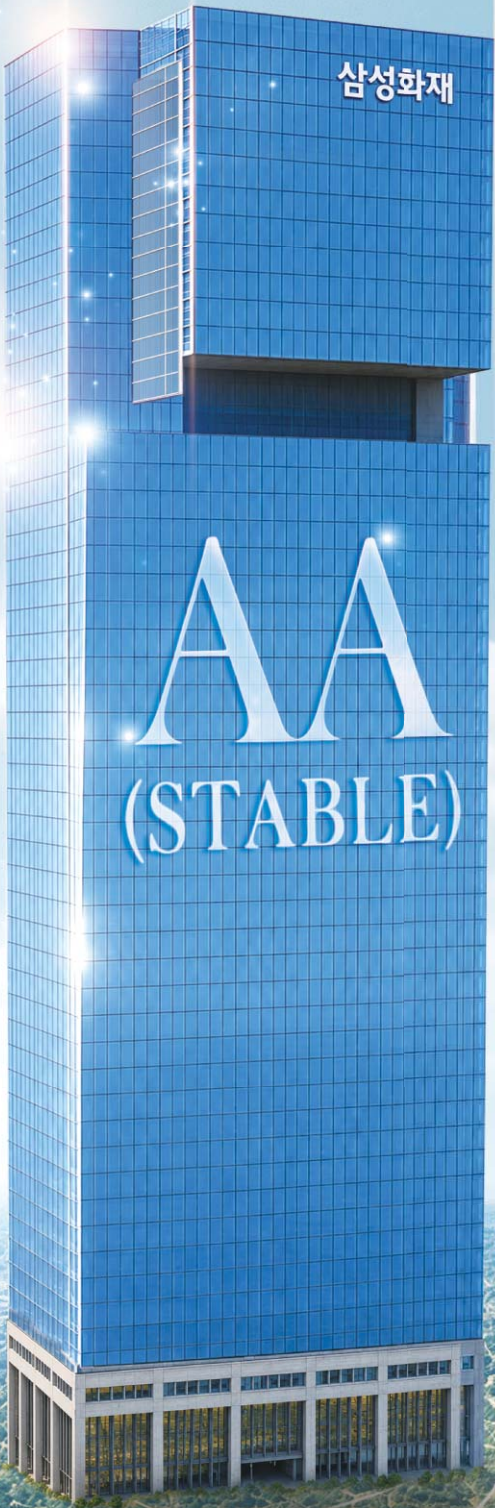
Samsung
Financial Networks

one and only, 삼성화재

대한민국 민간 기업 최초이자 유일,
S&P 신용등급 'AA' 획득!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300만 고객의 믿음이 함께했기에
글로벌 최고 수준의 신뢰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 더 큰 안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7월, 대한민국 민간 기업 S&P 신용등급 기준



S&P 신용등급

세계적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국가·기업 등의
채무 상환 능력과 신용도를 평가해 알파벳 기호로 매긴 지표

* 이 광고는 AI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삼성화재

통신3사, 주파수 재할당 인센티브 공략… 5G SA 전환 속도

초저지연 5G 고유 기능 구현 위해 연말까지 5G SA 코어망 연동 조건 5G 무선국 구축 시 재할당 대가 낮춰

통신 3사가 5G 단독모드(SA) 전환에 속도를 낸다. 정부가 기존 3G·LTE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대신 올해 말까지 기존 5G 무선국을 5G SA 코어망에 연동하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면서다.

17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올해 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275MHz 폭의 재할당을 위한 정부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재할당하기로 한 3G·LTE 주파수는 총 370MHz 대역폭으로, 이용기간 만료 시점이 올해 6월과 12월로 나뉜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만료된 95MHz 폭은 사업자들의 재할당 신청 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통신 3사가 현재 정부의 최종 승인 과 재할당 조건 이행을 앞두고 있는 대상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5G 단독모드 전환에 속도 내는 통신 3사.

은 올해 말 이용기간이 끝나는 나머지 275MHz 폭이다.

주파수 재할당에는 조건이 붙었다. 통신 3사는 올해 말까지 기존 5G 무선국을 LTE 코어망이 아닌 5G SA 코어망에 연동해야 한다. 정부는 LTE 보조망 의존도를 낮추고 초저지연·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 고유 기능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5G는 2019년 상용화 초기부터 LTE 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비단독모드(NSA)를 중심으로 제공돼 왔다. 통신사들은 LTE 코어망과 기존 설비를 활용해 초기 투자 부담과 구축 기간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때문에 기존 LTE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지속 제기됐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

지만 ‘반쪽짜리 5G’라는 오명을 남긴 배경이다.

이 같은 이유로 5G SA 전환은 통신 3사에 당면한 필수 과제가 됐다. 다만 SA 전환만으로 체감 품질 개선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LTE 보조망 의존도를 낮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실내·지하 등 전파 음영지역을 중심으로 5G 커버리지를 보강해야 한다.

현재 국내 LTE 무선국 대비 5G 무선국 규모는 3분의 1에 그친다. 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 전파누리 통계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기준 LTE 전국망·보조망은 총 112만488개인 반면 5G 무선국은 37만6095개 수준이다. 5G 단독망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5G SA 전환과 실내 5G 무선국 설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인센티브를 연계했다. 통신 3사의 3G·LTE 재할당 대가는 합산 약 3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재할

당 조건으로 SA 전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재할당 기간 중 실내 5G 무선국을 1만국 이상 추가 구축하면 대가는 3조원으로, 2만국 이상이면 약 2조900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통신 3사 중 5G SA 전환이 가장 빠른 곳은 KT다. KT는 2021년 국내 최초로 5G SA를 상용화했으며 2024년에는 5G 망에서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VoNR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는 SA를 적용한 단말을 갤럭시S에 이어 아이폰 일부 모델까지 확대했다. 다만 SA 전환 핵심인 전 5G 무선국의 코어망 연동이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전국 주요 기지국의 5G SA 작동 여부와 음영 지역 등을 점검하고 있다. 단말기 적용의 경우 LG유플러스는 오는 9월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통해 품질 평가를 진행 중이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구글, ‘영향 공작’ 韓 정치 유튜브 채널 449개 폐쇄

지선 앞둔 5월, 전체 중 81.7% 폐쇄 정부·정당 비판·지지 채널 모두 포함 여러 채널 조직적 움직임 여부가 기준

구글이 올해 2분기 한국 정치 관련 콘텐츠를 게시한 한국어 유튜브 채널 449개를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채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특정 메시지를 확산하는 ‘영향 공작’에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폐쇄 채널 10개 중 8개 이상이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5월에 집중됐다. 다만 구글은 이들 채널의 활동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17일 구글 위협분석그룹(TAG)이 공개한 ‘2026년 2분기 영향 공작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조직적 영향 공작 조사 과정에서 폐쇄된 한국어 유튜브 채널은 총 449개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4월 22개, 5월 367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브루노에 위치한 유튜브 본사 간판. /AP·뉴시스

60개다. 전체의 81.7%가 5월에 폐쇄됐다. 보고서에 나타난 시점은 구글이 해당 채널을 폐쇄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채널이 활동을 시작하거나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시점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5월 폐쇄가 집중됐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부 비판 142개 무더기 폐쇄…지지 채널도 제재

가장 규모가 큰 사례는 지난 5월 적발된 한국어 유튜브 채널 142개다. 구글에

따르면 이들 채널은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콘텐츠를 게시했다.

하지만 제재 대상의 정치적 방향이 한 쪽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나 정당을 비판하는 콘텐츠뿐 아니라 정부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콘텐츠를 게시한 채널도 포함됐다. 정부에 대한 지지와 비판 콘텐츠를 함께 게시한 사례 역시 제재 대상에 올랐다.

구글이 문제 삼은 핵심은 콘텐츠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여러 채널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여부다.

구글이 말하는 ‘영향 공작’은 여러 이용자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주체가 다수의 계정이나 채널을 조직적으로 운영해 특정 메시지의 영향력을 키우는 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운영 주체가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여러 채널을 만든 뒤 비슷한 시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치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 각각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

제 배후에는 동일한 운영 주체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활동이 이어질 경우 이용자는 특정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실제보다 많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일반 이용자의 자발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과 조직적인 여론 영향 활동을 구분하는 것이 구글 조사에서 중요한 이유다.

◆‘무슨 주장’보다 ‘어떻게 움직였나’ 본다

구글 TAG는 영향 공작 조사에서 게시된 ‘콘텐츠 자체’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술적 신호와 행동 패턴 등을 토대로 여러 계정이 조직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분석한다.

특정 정부나 정당을 비판하거나 지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널의 활동에서 조직적인 연계성이 발견됐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인 셈이다.

유튜브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들이 영향 공작 단속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다수

계정을 이용해 정치적 여론이나 선거 등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

다만 이번 보고서만으로 폐쇄된 한국어 채널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구글은 폐쇄된 449개 채널의 이름과 실제 운영 주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각각의 활동을 영향 공작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해당 콘텐츠가 국내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5월 폐쇄 채널이 급증한 배경과 지방선거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만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배후에 있었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다.

구글의 영향 공작 단속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중국과 러시아, 인도, 미국 등과 관련된 조직적 영향 활동도 조사했다. 특히 중국과 연계된 영향 공작 조사에서는 2분기에만 유튜브 채널 9173개가 폐쇄됐다. 러시아를 지지하거나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서방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게시한 러시아 연계 채널들도 제재됐다.

/최빛나 기자 vitna@

KT-서울대병원, 의료분야 AX 플랫폼 구축 협력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 협력

KT가 공공 의료 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에 나선다.

KT는 서울대학교병원과 의료 AX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KT가 보유한 의료 분야 AX 전략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공동 추진한다. 추진 내용은 ▲의료 AX 플랫폼 표준모델 발굴 및 적용 ▲인공지능(AI) 네이티브 병원 등 정부 정책과제 실증·고도화·사업화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 지원 및 업무 효율화 ▲헬스케어 시장 확산 등이다.

구체적으로 KT는 AI·클라우드·데이터를 통합한 의료 AX 플랫폼 기획에 이어 개



지난 14일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봉균 KT 엔터프라이즈부장(왼쪽)과 백남중 서울대학교병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발·검증·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협력한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임상·진료·연구 현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플랫폼 적용 과제

를 발굴하고 의료적 전문과 유효성 평가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KT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추진하는 그룹 통합 DX 플랫폼 구축과 연구·개발·실증·사업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의료 AX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의료 AX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의 플랫폼 기반 협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 의료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AI 혁신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AX 업무 협약은 지난 14일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KT 엔터프라이즈부장 김봉균 부사장과 백남중 서울대학교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민선 기자

‘페이스페이’ 혜택 결함

LG유플러스가 2030세대 고객을 겨냥한 생활 밀착형 알뜰폰 요금제를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통합 플랫폼 ‘알뜰’에서 토스모바일 ‘페이스페이’ 제휴 요금제 프로모션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알뜰은 LG유플러스 알뜰폰 망 사업자의 요금제와 혜택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데이터 제공량에 따른 가격 비교는 물론, 각 알뜰폰 사업자의 특색 있는 제휴 상품과 프로모션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토스모바일은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로, 이달 초 자사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 혜택을 결합한 알뜰

폰 요금제 5종을 출시했다.

토스모바일이 운영하는 페이스페이는 고객이 얼굴과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면 지원 매장에서 지갑이나 스마트폰 없이 얼굴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다.

해당 요금제는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7GB+ ▲10GB+ ▲71GB+ ▲100GB+ ▲15GB+ ▲100GB+ 등으로 구성했다. 가입 후 7개월 기준으로 월 8000원부터 1만 6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요금제 혜택은 매월 페이스페이 쿠폰(2000원 상당)을 최대 24개월간 제공한다. 단 개통한 달 2개월 후부터 받을 수 있다. 이후 4개월 간 요금제 가입을 유지하면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추가로 제공해 최대 5만8000원 상당의 페이스페이 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민선 기자

10만원으로 경주마·미술품 산다… ‘조각투자 시장’ 11월 개장

오는 11월 16일부터 주식처럼 거래
내년 2월 토큰증권 법적 기반 마련
올해 조각투자 발행건수 14건 그쳐

“내 말이 이번 주말 과천 경마장에서 경기를 뛴다네. 부چه 혈통이 좋고 체격도 커서, 승률이 높은 편이야. 얼마에 샀냐고? 10만원 투자했다네.”

지금은 허풍처럼 들리는 이런 자랑이 오는 11월이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경주마나 미술품, 부동산, 영화제작 등에 일반인도 소액으로 ‘조각 투자’ 할 수 있는 신종증권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내년 2월부터는 분산원장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기반도 마련되면서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가상자산·금융업계에 따르면 한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국거래소(KRX)는 지난 3일 ‘신종증권 시장 개설 안내’ 설명회를 열고 오는 11월 16일 신종증권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신종증권이란 기존 정형화된 주식이나 채권 등과 달리 비정형적 권리를 증

권화한 상품을 의미한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미술품, 가축 사육, 영화 제작,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이나 권리를 나눠 여러 투자자가 투자하는 조각 투자 상품이 대표적이다.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각 투자 상품을 사고팔 수 있다. 다만,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 지정가 주문만 허용된다.

거래소는 올해 10월 6일~11월 13일 총 6주간 모의시장을 연다. 실제 시장 개설일은 금융당국의 상장 상품 승인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장내 신종증권시장에 상품을 상장하려는 발행인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만기까지 의무 보유 10억원(또는 5%)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품 역시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 상장증권 총수 10만 증권(또는 10만 좌)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신종증권은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등록된다는 점에서 내년 시행되는 토큰증권 제도와는 구분된다.

내년 2월 4일부터는 개정 전자증권법(토큰증권법) 시행으로, 분산원장을 활용한 토큰증권 방식의 발행·관리가 가능해진다. 토큰증권의 구체적인 유통시장과 범위는 미정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는 (전자증권으로) 장내 또는 (토큰증권으로) 장외에서 발행할 것인지 선택지가 있다”며 “향후 법이 시행되면 투자계약증권을 기반으로 토큰증권 활용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급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부동산·음원저작권·미술품·가축(한우·한돈) 등 4개 부문을 합산한 조각투자 발행 건수는 올해들어 지난 11일 기준 14건에 그쳤다. 조각투자 발행 건수는 2023년 3건에서 2024년 60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50건으로 줄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KCGI운용, 주식형펀드 3년 새 3배 성장

전체 순자산 5.9조… 업계 10위 도약
연금자산, 3.3배 증가한 2조2500억

KCGI자산운용이 사명 변경 3년 만에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을 약 3배로 늘리며 업계 10위에 진입했다. 연금자산도 3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순자산은 5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CGI자산운용은 지난 7월 말 기준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이 2조16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7월 말 7400억원에서 3년 동안 1조42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공모 주식형펀드 순위는 48개 종합자산운용사 가운데 17위에서 10위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내의 공모 주식형 시장의 성장률을 웃돌며 대형 금융그룹 계열 운용사가 주도하는 상위권에 진입했다.

◆주식형 3배·전체 순자산 2.1배 ↑… 연금자산 3.3배

주식형펀드 성장을 바탕으로 회사 전체 순자산은 3년 전보다 2.1배 늘어난 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공모펀드 가운데 재간접형 순자산은 49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며 업계 10위에 올랐다.

채권형 순자산은 400억원에서 2600억

원으로 572%, 혼합채권형은 1000억원에서 4300억원으로 339% 증가했다. 주식·재간접·혼합형·채권형을 합친 공모펀드 순자산도 1조7300억원에서 4조6600억원으로 늘었다.

장기 운용 성과도 뒷받침됐다. 순자산 100억원 이상 펀드 가운데 벤치마크를 웃돈 비율은 1년 50.0%에서 3년 82.8%, 5년 88.5%, 10년 90.0%로 높아졌다.

대표 상품인 ‘KCGI코리아 1[주식]’의 3년 수익률은 170.6%로 벤치마크를 17.0%포인트 웃돌았다. ‘KCGI코리아퇴직연금’과 ‘KCGI코리아연금전환자’도 각각 164.6%, 165.8%를 기록했다. 유형별 3년 초과 수익률은 국내 주식혼합형 24.9%포인트, TDF 18.2%포인트, 해외 주식혼합형 15.8%포인트, 해외 주식형 13.3%포인트였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연금자산은 3년 동안 3.3배 증가한 2조2500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펀드 자산은 6.6배로 늘었다.

TDF 순자산은 지난달 초 1조원을 넘어 업계 8위에 올랐다. ‘KCGI프리덤펍적TDF2050’의 3년 수익률은 59.0%로 벤치마크보다 25.8%포인트 높았다.

‘KCGI샐러리맨[주식-재간접]’의 3년 수익률은 73.9%로 벤치마크를 40.8%포인트, ‘KCGI차이나[주식]’은 53.2%로 38.1%포인트 각각 상회했다.

◆판매망 넓히고 ETF·대체투자자로 확장
운용 성과는 판매채널과 기관 위탁운용 확대에도 연결됐다. KCGI자산운용 펀드를 1000억원 이상 판매하는 대형 채널은 3년 동안 2곳 늘어난 10곳, 100억원 이상 판매하는 중형 채널은 5곳 증가한 29곳으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공제회 등 약 20개 기관투자자의 위탁 운용사로 선정됐다. 올해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와 제휴하고 관련 펀드를 출시하며 해외 투자 상품군도 보강했다.

KCGI자산운용은 앞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신상품을 개발하고 채권·대체투자자 사모 운용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연금자산과 글로벌 투자, 종합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며 “차별화된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고객의 장기 투자에 함께하는 운용사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배형근 사장 “AI 경쟁력이 미래 성장 좌우”

(현대차증권)

대담회 열고 주니어 직원들과 소통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이 주니어 직원들과 만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금융 전환을 미래 성장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13일 배 사장과 사내 주니어보드인 ‘CLB(Change Leader Board)’가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대담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CLB는 현대차증권 출범 이후 약 18년간 운영된 주니어 직원 중심의 소통 협의체다. 현재까지 약 150명이 참여해 업무와 경영 활동, 인사·복지제도, 기업문화 등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배 사장은 2024년 취임 이후 전국 지점 순회 간담회와 CLB 대담회,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임직원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CLB와도 정기적으로 만나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해 왔다.

이번 대담회에서 CLB 위원들은 업무와 AI 활용, 조직 혁신을 중심으로 지난 3년간의 변화를 점검하고 회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배 사장은 최근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한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회사의 중장기 성장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전달하고 주주를 위한 책임경영을 실천하려는 취지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허정윤 기자

“코스피 변동성 완화장치 실효성 높여야”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장치의 발동 기준의 실효성 제고 및 장기 기관 투자자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의 김준석·장근혁 연구원은 ‘주식 시장 변동성 상승의 배경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두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코스피 일간 수익률 변동성은 3.6%로, 1.4%였던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커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에 따라 유가와 금리,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

유형별 매수와 매도가 차별화되면서 수급의 충돌이 크게 강화한 점을 변동성의 배경으로 꼽았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두 종목의 코스피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한 가운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덩달아 증시가 출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두 연구원은 “정보에 근거한 가격의 조정은 저해하지 않되 쏠림과 왜곡에 따른 단기적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주가 지수 연계 투자 상품이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편중되지 않도록 비중

제한 지수의 활용을 확대하고 변동성 완화 장치의 발동 기준을 정교하게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변동성 완화 장치 중 동적 완화 장치는 코스피200 종목에 대해 직전 체결가 대비 ±3%, 코스피200 이외의 종목은 직전 체결가 대비 ±6% 기준이 적용되고, 정적 완화 장치는 모든 종목에 대해 전일 종가 대비 ±10%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두 연구원은 개별 종목의 유동성과 변동성 수준은 매우 다름에도 코스피200 여부에 따라 또는 모든 종목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는 실효성이 높은 구조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들은 또 국내 장기 기관 투자자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하은 기자

NH투자증권, 중기형 IMA 3호 출시

성과보수 기준수익률 높여

NH투자증권은 18일부터 24일까지 중기형 IMA 상품인 ‘N2 IMA13호’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만기는 2년3개월이며 총발행액은 1200억원이다. 모집 한도가 소진되면 청약 기간 중에도 조기 마감된다.

이번 상품의 성과보수 기준수익률은 연 4.5%로 앞선 상품의 연 4.0%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기준수익률을 초과해 발생한 수익에는 40%의 성과보수가 적용된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원금 지급을 약정하고 조달한 자금을 인수금융과 기업대출, 회사채 등 기업금융(IB)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증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원금 지급이 약정된다.

NH투자증권은 기업금융 부문에서 확보한 투자 자산 발굴 능력을 활용해 우량한 중장기 기업금융 자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이다. 단순히 시장금리를 추종하는 상품과 달리 기업금융 자산의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앞서 출시한 IMA 1·2호는 모집 한도를 모두 채웠다.

NH투자증권은 이번 3호에서도 기준수익률을 상향해 투자자가 성과보수를 부담하기 전 가져가는 수익의 기준을 높였다. 기준수익률을 넘어선 운용 성과에 대해서만 성과보수를 부과해 고객과 증권사가 초과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허정윤 기자

새만금 청정수소 복합단지 첫발… 태양광·수소발전 실증

남동발전, 1000MW급 에너지 설비 수전해 설비 320MW 규모로 조성 전기→수소→전기 순환구조 구현 잉여전력 저장해 출력제어 해소 RE100 기업 무탄소 전력공급 확대

한국남동발전이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부터 그린수소 생산, 수소전소발전까지 전 과정을 한곳에서 연계·검증하는 국내 첫 청정수소 복합단지 조성에 나선다. 세 분야 모두 국내 최대 규모의 실증으로, 향후 국내 무탄소 전력 공급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지난 14일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사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그린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전북 부안군 소재 새만금 3천여 약 305만 평(약 1008만㎡) 부지에 ▲육상 태양광발전(1000MW)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설비(320MW) ▲수소전소 발전(100MW)을 한데 모아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의 핵심은 '전기→수소→전기(P2G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사장직무대행(오른쪽에서 3번째)이 지난 14일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사에서 '새만금 그린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4번째),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오른쪽에서 5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남동발전

2P)'로 이어지는 무탄소 에너지 순환 구조를 상업 규모로 완성하는 데 있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수전해 설비로 전달해 그린수소로 바꿔 저장하고, 이를 다시 수소전소터빈에 투입해 무탄소 전력으로 재변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구매 의무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수전해,

수소발전 연구가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됐 적은 있으나, 단일 부지에서 세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계통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검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용량 탠덤셀 태양광, 대용량 수전해, 수소전소터빈 등 차세대 기술의 첫 실증이 동시에 이뤄진다.

이번 실증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국내 에너지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전선

로 용량 부족 등으로 출력을 강제로 제한해야 했던 잉여 재생전력을 수소 형태로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높을 때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 및 호남권 등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의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나아가 24시간 무탄소 전력이 필수적인 RE100 참여 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 모델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새만금이 그 첫 검증 무

대가 되는 셈이다.

사업 추진 일정은 정부 정책 및 정부의 청정수소 발전시장 개설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일 개정고시를 통해 올해 청정수소 발전시장 물량을 500GWh로 확정했으며,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다. 남동발전은 복수 기업과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협의와 주요 기자재 공급망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협약에 따라 사업부지 제공, 인·허가 신속 처리,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행정적 지원을 총괄하고, 남동발전은 사업모델 구축과 지역 상생방안 실행 등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영혁 남동발전 사장 직무대행은 "새만금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그린에너지 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겠다"며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K-소비재, 中 칭다오 판촉전 6만명 몰렸다

코트라, 72개사 210여개 품목 선보여
유통망 연계 中 내수시장 공략 확대

K-소비재가 새로운 대중 수출 효자 품목으로 부상한 가운데, 중국 시장의 관문 역할을 하는 칭다오에서 열린 한국 소비재 판촉전에 6만여 명의 현지 방문객이 몰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중국 칭다오 리다쇼핑센터에서 '2026 K-라이프스타일 주간 in 칭다오'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산둥성 내 20여 개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대표 유통기업인 칭다오 리다그룹과 공동으로 열렸다. 특히 세계 3대 맥주 축제인 '칭다오 국제맥주축제' 기간과 연계해 마케팅 효과를 한층 높였다.

행사장에는 국내 K-소비재 기업 72개사가 참가해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패션, 유아용품 등 210여 개 품목을 선보였다. 현장에서는 전기밥솥 조리 시식, 한강



코트라는 8월 14일~16일까지 3일간 중국 칭다오에서 '2026 K-라이프스타일 in 칭다오'를 개최했다. 행사장을 방문한 현지 소비자가 K-푸드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코트라

라면 조리기 체험 등 참여형 콘텐츠가 큰 호응을 얻었으며, 화장품과 건강식품, 패션 제품에도 현지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국 관광 홍보관과 애니메이션 상영 등 K-컬처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도 선순환 효과를 더했다.

민감피부 케어밤을 제조하는 국내 A사

참석자는 "중국 소비자들은 피부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제품의 성분, 안전성 등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현지 소비자의 구매 기준과 선호를 직접 확인한 만큼, 향후 마케팅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을 방문한 쉰바오하리다그룹 회장은 "한국 소비재는 품질과 디자인 경쟁력이 높아 소비자 반응이 매우 호의적이었다"며 "현지 유통망과 협력해 소비자 반응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홍보와 체험 마케팅을 강화한다면 중국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구 1억 명 이상 보유한 산둥성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 소비시장 중 하나로 한국 소비재 대중 수출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 중 하나다. 코트라는 현지 대형 유통망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소비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반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AI·반도체 반영 2040 전력수요 재산정

‘제4차·5차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

정부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과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에 맞춰 2040년까지의 국가 전력수요를 재전망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론화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5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수송·건물 등 사회 전반의 에너지원을 전기화하는 '전기국가'로의 전환 대응책과 함께, 달라진 여건을 반영한 전력수요 재전망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월 전력수요 전망 잠정안을 공개했으나, 6월 메가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등 새롭게 발생한 전력수요 요인을 반영해 수요소위원회를 통해 전망을 재검토해 왔다. 5차 토론회에서는 이러

한 수정 재전망 결과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화하기 위한 보급 목표도 제시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 열리는 4차 토론회에서는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전기화를 신산업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다룬다.

기후부와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전기본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4·5차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보다 많은 국민이 토론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오는 9~10월에는 신규원전,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전력시장 개편방향, 송변전 계획 등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 R&D 수요조사 통합 미래기술 발굴

농식품부·농진청 등 4개 기관 참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미래 농림식품 산업을 이끌 연구개발(R&D)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028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 기획을 위한 '농림식품 4개 기관 통합 수요조사'를 내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존에 별개로 추진되던 기술수요 조사와 사업수요 조사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개별 기술 제안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R&D 사업 아이디어까지 연계할 수 있는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관별 농식품부 'AI 기반 농식품 산업화, 첨단바이오, 스마트농업, 농기계, 미래식품 등', 농진청 '기초·기반·실용화 연구, 첨단정밀농업, 기후변화 대응 등', 검역본부 '검역·방역,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 해충 대응 기술 등' 연구 영역을 연계해 현장 수요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업이나 융합이 필요한 신규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도출한다.

아울러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 기획의 완성도 제고와 역할 분담을 통한 중복성 제거 등을 위해 2024년부터 운영 중인 농식품부·농진청 '공동기획단'을 중심으로 수요조사 결과 검토와 신규사업 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여름 전력피크 '저녁형'으로 3년 새 1시간 늦어져

태양광 확대에 한낮 전력수요 상쇄
올해 86%가 오후 7~8시 최대전력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 발생 시점이 최근 3년간 지속해서 늦춰지며 '저녁형'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확대가 한낮의 전력시장 수요를 상쇄하면서 피크 시점을 뒤로 밀어낸 결과다.

17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전력수급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43일 중 86.0%(37일)의 최대전력이 오후 7~

8시에 발생했다. 해당 기간 동일 시간대의 최대전력 발생 비중은 2024년 60.5%(26일), 2025년 69.8%(30일)에 이어 올해 80%를 넘어섰다. 반면 기존 피크 시간대인 오후 4~6시 비중은 2024년 25.6%(11일)에서 올해 9.3%(4일)로 대폭 감소했다. 최대전력 발생 평균 시각 역시 2024년 오후 5시 49분에서 2025년 오후 6시 20분, 올해 오후 6시 53분으로 3년 만에 약 1시간 늦어졌다.

이 같은 현상의 주원인은 자가용 태양광 등 시장 미거래 태양광 발전의 증가

다. 전력 사용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3~4시에도 태양광 발전이 한낮 수요를 충당하면서 전력시장이 부담할 물량이 낮게 잡힌다. 그러나 해가 지면서 태양광 출력이 급감하면 전력시장에서 충당해야 하는 수요가 급증해 피크 시점이 저녁으로 이동하게 된다. 실제 전체 전력 사용량을 감안해 정부는 올해 여름 최대전력 발생 시점을 8월 3주차 평일 오후 4~6시(94.1~98.8GW)로 전망했으나, 전력시장 통계상 피크는 이보다 늦은 저녁에 집중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광주 군공항, 서산·예천 분산 검토… 충주는 예비지로 활용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 위해 2028년 중순까지 임시 이전 계획
조종사 양성·대비태세 저하 ‘과제’
한미 COB로 당국 간 협의 필요

국방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공군 기지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충남 서산과 경북 예천을 주요 후보로 보고 충북 충주 중원기지는 예비 대체지로 활용하는 구상이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활용하기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기지 기능을 임시 이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해 산업단지 조기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했다.

광주 군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운용한다. 제189·216비행교육대대는 T-



광주 군공항 이미지.

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고 제206전투비행대대는 TA-50 블록2를 맡는다. 전투조종사 양성과 서남부권 영공 방어가 주요 임무다.

국방부는 예비비 협의를 서둘러 하반기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목표 시점까지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2028년 중순은 전체 기능 이전을 마무리하는 개념이라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기능 이전에 따른 조종사 양성과 대비태세 저하도 과제다. 국방부는 시뮬레이터 등 시설을 갖춰 교육 공백을 줄이고

비행 소티에도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추가인력과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시설은 임시로 구축한 뒤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기지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로 주한 미7공군이 주둔하고 있어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도 필요하다. 국방부는 미국 측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COB 기능 조정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2032년 광주 군공항을 무안 군공항으로 최종 이전할 방침이다. 2028년 중순 기능 분산이 이뤄지면 최소 4년간 임시 운영체제가 이어지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시설 공법이 잘 갖춰져 있어 사전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면 2032년 12월까지 최종 이전이 가능하다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metro

부산항, 자율주행 스마트 거점 전환

42개월간 자동화 기술 개발·적용
총 454억6000만원 재원 투입

부산시가 부산항 신항을 미래형 스마트 물류 거점으로 바꾸기 위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공모에서 사업 주관 체계와 참여기관을 확정하면서 항만 자동화와 지역 미래차 산업을 함께 키우는 기반도 마련됐다.

부산시는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사업 가운데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개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2개월 동안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무인 운송과 자동화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까지 추진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과 부산항만공사가 전체 사업을 이끌며 지역의 주요 기관과 부품·IT 기업도 참여한다. 투입 재원은

모두 454억6000만원으로 국비 200억원과 시비 150억원에 민간 재원 104억6000만원이 더해진다. 사업은 3개 세부 과제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진행한다.

핵심 과제는 항만 운영을 지능화하는 통합관제와 현장 실증이다. 여기에 메가와트(MW)급 자동충전 기술을 포함한 항만 맞춤형 자율주행 기술과 24시간 무인 운영을 목표로 하는 전동화 자율이동로봇(AMR) 핵심기술 개발이 병행된다.

부산시는 기술 확보가 실제 항만 운영의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이어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한 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해외 스마트항만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부산항의 첨단 도약과 지역 미래차 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중요한 발판"이라고 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기회발전특구 상한면적 확대 환영

도 300만평, 시 200만평으로 확대

경남도가 정부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 면적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도(道)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 면적은 기존 200만평에서 300만평으로 100만평(50%) 늘어나고, 시는 150만평에서 200만평으로 50만평(33%) 확대된다. 정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상한면적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경남은 고성·통영·창원·밀양·창녕·

하동 6개 지구, 660만㎡ 전량을 이미 특구로 지정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상한 면적을 다 채웠다. 전국 평균 지정률은 55.6%다.

도내 특구에는 현재 55개 기업이 7조 649억원 규모의 투자와 6632명의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특구 지정 여력이 100만평 늘어나면서 첨단 산업과 지역 전략 산업의 신규 투자 수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조선·항공·기계 등 제조기업의 투자 수요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재정경제부와의 '지역 현안 청취 회의'에서 비수도권 상한면적 확대를 건의했고 이후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요청해 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북도, 원전사고 대비 임시주거시설 추가

기존 56개소에서 96개소로 확대

경북도가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 임시주거시설을 기존 56개소에서 96개소로 확대했다. 울진군의 부족한 자체 수용능력을 보완하고 울진·영양·봉화 등 한울권역의 주민 대피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울진군은 원전사고 발생 시 대피 대상 약 3만3000명 가운데 군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1만3000명에 그쳐 경주 5개소와 포항 2개소의 구호시설까지 이용해야 했다. 이에 일부 주민은 경주와 포항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북도는 2025년 8월 한울권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계기로 영양군·봉화군과 협의해 임시주거시설을 추가 확보했다. 현재 지역별 시설은 경주 35개소, 봉화 20개소, 울진·영양 각 14개소,

포항 13개소 등 모두 96개소다.

방사능방재 임시주거시설은 방사능 누출 사고 때 주민들이 임시로 생활하는 구호소로, '재해구호법'과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원전시설 반경 30km 지역의 학교와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해당 시군은 매년 방사능방재훈련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해 실제 대피경로를 점검하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북도도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상태와 비상시 즉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확대된 임시주거시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시설 관리와 방재훈련을 철저히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주시가 감포읍 나정리 일원에 조성할 해양레저관광거점 '용오름길' 조감도.

경주시, 490억 규모 해양레저관광 조성

2028년 12월 준공 계획

경주시가 감포읍 나정리 일원에 총 490억원 규모의 해양레저관광거점을 조성한다.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10월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 245억원, 도비 73억 5000만원, 시비 171억 5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사업대상지에는 해양레저지원센터와 사계절레저체험센터, 용오름길,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 나정수상레저체험장, 고리섬폴장, 민파식적공원이 들어선다.

해양레저 체험시설과 함께 문무대왕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해안 경관을 활용한 산책·휴식 공간도 조성한다.

경주시는 2023년 7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중앙투자심사와 사업계획 승인, 일반해양이용협의, 공유수면 잠·사용허가 등 절차를 진행했다. 다음달 시행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보문관광단지과 도심에 집중된 관광 영역을 동해안까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경북)=김준한 기자

지역 이모저모

경북문화관광공사

단체여행객 버스 임차비 지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30인 이상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2026년 하반기 '버스타고 경북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기관·단체·여행사가 모집한 30인 이상 단체여행객이다. 경북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고 여행 기간 도내 숙박비·식비·입장료 등으로 3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출발 전 참가자 전원이 여행자보협에 가입해야 한다.

버스 임차비는 출발지역에 따라 경북·대구권 최대 60만원,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최대 80만원, 기타 지역 최대 7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경북=김진곤 기자

나주시

녹색배 '설원' 신제품 육성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가 국내에서 육성한 녹색배 '설원'을 새로운 나주배 품종으로 육성한다. 품종의 다변화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남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나주배원예농협과 함께 국내 육성 품종인 녹색배 '설원'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나주시는 '설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과 재배 농가 교육, 품질 관리 등을 추진한다. /나주(전남광주)=양수영 기자

부산시

'해누리길 달빛 걷기' 행사

부산 해운대구가 해운대의 바다와 도심 야경을 함께 즐기는 야간 걷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해운대구는 오는 28일 오후 7시 '해누리길 달빛 걷기'를 열고 오는 11월까지 모두 8차례 주민 참여형 걷기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첫 행사는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인 해운대스퀘어에서 출발한다. 참가자들은 준비운동을 마친 뒤 트레킹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약 2시간 동안 해누리길을 걷는다.

이번 걷기에서는 1코스과 8코스가 운영된다. 코스별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전체 모집 규모는 120명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

세계 딸기 엑스포 포스터 공개



(재)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수현 충남도지사·백성현 논산시장, 이하 조직위)가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세계 딸기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엑스포 개막을 6개월여 앞두고 선보인 포스터에는 행사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담겼다. /논산(충남)=양대승 기자 zzica@

면세점 4사, 2분기 흑자 행진... 수익성 중심 구조조정 통했다

출혈경쟁 벗어나 수익사업 집중
관광객 급증... 실적 개선 뒷받침
하반기 객단가 회복 등 과제도

국내 주요 면세점 4곳이 올해 2분기 모두 영업이익을 내며 수익성 회복에 성공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자 교체와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장 정리 등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효과가 실적에 반영됐다. 다만 관광객 한 명이 면세점에서 쓰는 금액은 계속 줄고 있어, 개별 관광객의 지갑을 열어 객단가를 높이는 것이 하반기 실적 개선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신세계·현대면세점은 올해 2분기 모두 영업흑자를 기록했다. 매출 규모를 키우기 위한 출혈 경쟁에서 벗어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 전략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롯데면세점은 2분기 매출 9043억 원과 영업이익 319억 원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시스

기간보다 매출은 35%, 영업이익은 383% 증가했으며 영업흑자 행진도 6개 분기째 이어졌다. 지난 4월 인천공항 DF1 구역 영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공항 채널이 확대된 것이 외형과 이익 성장에 힘을 보탰다.

현대면세점도 인천공항 사업 확대에 힘입어 흑자 대열에 합류했다. 4월 DF2 구역 운영을 시작하면서 기존 사업 영역에 확장

품과 주류를 추가한 결과, 2분기 매출 3104억 원과 영업이익 62억 원을 기록했다.

신라와 신세계는 반대로 비용 부담이 컸던 인천공항 사업을 축소해 이익 개선 효과를 거뒀다. 호텔신라 TR부문의 2분기 매출은 772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1%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364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3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인천공항 DF1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임차료 등 고정비 부담을 낮춘 것이 주효했다.

신세계디에프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인천공항 DF2 사업 철수 여파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5426억 원에 그쳤지만 영업이익은 333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 신리와 신세계 모두 공항 사업 축소에 따른 매출 감소를 감수하는 대신 럭셔리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며 수익성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난 것도 면세업계 회복을 뒷받침했다. 한국관광공사 집계 결과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07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했다. 2분기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 3조3595억 원 가운데 외국인이 쓴 금액은 2조6542억 원으로 약 79%를 차지했다.

문제는 관광객 증가 속도만큼 소비액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면세시장 고객층이 대량 구매에 나섰던 중국인 보다

리상인 '다이궁'에서 젊은 개별 관광객 중심으로 바뀌면서 외국인 1인당 구매액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객단가는 약 75만 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94만 원보다 20%가량 줄었다. 한때 수백만 원에 이르던 객단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관광객 유입 확대만으로 과거와 같은 매출 성장세를 되찾기 어려운 시장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원화 약세와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 감소 역시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면세업체들은 다이궁 유치를 위해 투입했던 높은 송객수수료를 축소하는 한편 K-뷰티와 패션 상품을 강화하고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별 관광객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 회복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늘어난 외국인 방문객을 실제 구매로 연결하고 떨어진 객단가를 얼마나 회복시키느냐가 향후 실적 개선의 지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편의점, 추석 선물세트 판매... 개인화 소비 트렌드 적극 반영

CU 웰니스·미래가치·미식 전면에
GS25 '우리동네 선물가게' 테마 구성
이마트24 농·축·수산 상품 30% 확대

17일 편의점 4개사가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일제히 추석 선물세트 판매에 돌입했다. 이번 추석 선물세트는 3000만 원대 휴머노이드 로봇과 손금 골드바 등 초고가 이색 상품부터 인기 캐릭터 IP 기획전, 신선 식품과 실속형 먹거리까지 폭넓게 구성돼 개인화된 소비 트렌드를 적극 반영했다.

CU는 총 71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이며 웰니스와 미래 가치, 미식 상품을 전면에 내세웠다. 3100만 원 상당의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과 399만 원대 로봇 개를 비롯해 안마의자, 리클라이너 등 건강 가전을 준비했다. 전 연령대에서 인기가 높은 포켓몬 캐릭터를 활용한 과일·캠핑·골프 용품 등 20종의 기획 상품과 함께 최소 한 우, 경주천년한우 등 프리미엄 미식 상품 및 손금 12종도 마련했다. 사전 예약 판매



CU는 710여 종의 추석 선물상품을 선보인다. /BGF리테일

는 8월 14일부터 시작해 카드 및 간편결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GS25는 '2026 우리동네 선물가게'를 테마로 600여 종의 상품을 구성했다. 감정 인식 휴머노이드 로봇인 '소셜로봇리쿠(550만 원)'와 바둑 로봇, AI 대화 로봇 키링 등 스마트 기기를 대거 선보였다. 안중근 의사 수인을 담은 금메달과 이종섭 은자화 메달, 화투 모티프의 삼팔광팬 카드



이마트24 모델이 '2026년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24

형 금메달 등 15종의 골드·실버 기획전을 진행하며, 900만 원대 프리미엄 와인부터 가성비 위스키, 1만~5만 원대 실속형 명절 먹거리 세트까지 라인업을 세분화했다. 9월 4일까지는 제휴 카드를 통한 사전 할인 및 증정 행사를 펼친다.

세븐일레븐은 가치소비와 스타일 럭셔리 트렌드에 맞춘 600여 종의 선물 상품을 선보였다. 주력 상품으로는 전통 요소를 결

합한 '뱅스세븐데이' 헬로키티 단독 굿즈 9종을 내놓았으며, 롯데호텔 베이커리 시그니처 레시피를 담은 케이크와 40년 전통 한식당 무궁화의 프리미엄 김치·고기 세트 등 호텔 미식 협업 상품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갈비 맛집 콜라보 상품과 한국 금거래소의 손금 상품, 실속형 추천 상품을 마련하고 제휴 카드 및 통신사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이마트24는 일상적인 장보기 채널로 자리 잡은 흐름에 맞춰 농·축·수산 신선 식품 구색을 전년 추석 대비 약 30% 늘렸다. 암소 한우, 특선 영광 백굴비, 유명 산지 과일 등 대표 신선식품을 비롯해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한우미식세트' 6종을 단독 출시했다. 또한 프리미엄 위스키와 사케 등 48종의 주류, '붉은 말의 해'를 기념한 말 골드바 등을 준비했으며,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제휴 카드 할인과 통신사 멤버십 중복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필요한 공간만 바꾼다... '핀셋 인테리어' 각광

CJ온스타일 부분시공 상품 매출 급증

집 전체를 뜯고치기보다 필요한 공간만 골라 바꾸는 '핀셋 인테리어'가 뜨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싱크볼·실링팬·욕실 환풍기 등 부분시공 상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비용과 공사 부담은 낮추면서도 공간 변화 효과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대표 품목은 싱크볼이다. 올해 1~7월 CJ온스타일의 싱크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1000만원 이상이 드는 주방 전체 인테리어와 달리 50만~100만원대로 교체할 수 있고, 2시간 안팎의 시공으로 주방 분위기를 바꾸고 사용 편의성을

바꿀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사각 싱크볼 브랜드 '아티잔'은 지난 6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209% 증가했다.

부분시공 수요는 주방을 넘어 거실·욕실·현관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올해 1~7월 실링팬 매출은 311%, 욕실 환풍기는 194% 증가했다. 현관과 거실을 나누는 중문도 성장 상품군이다. CJ온스타일이 지난 3월 모바일 라방으로 선보인 '영림중문'은 론칭 방송에서만 주문액 2억원을 기록했다.

부분시공은 설치 후 장기간 사용하는 고관여 상품인 만큼 브랜드 신뢰도와 디자인·기능·AS가 구매 결정에 중요하다. CJ온스타일은 상품군을 확대하는 동시에 모바일 라방과 숏폼을 결합해 실제 설치 과정과 사용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온라인 구매 장벽을 낮추고 있다. /김서현 기자

신세계백화점, 전 점포 '베이비페어' 행사

인기 상품 최대 40% 할인

신세계백화점이 유아동 수요를 겨냥해 역대 최대 규모의 아동 장르 행사를 펼친다.

신세계백화점은 30일까지 전 점포에서 '베이비페어'를 연다. 50여개 아동 브랜드가 참여해 인기 상품을 최대 40% 할인하고 신상품과 신세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단독 상품도 다채롭게 소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세계백화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프리미엄 육아 용품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브라이텍스는 프리미엄 카시트 '듀얼픽스 프로 렉스 인퍼트'의 인기 색상인 '하얀올리브'를 단독으로 선보인다. 싸이벅스는 신규 유모차 '디베르'를 센텀시티

에서 부산 지역 최초로 출시하고, 프리미엄 아기띠 브랜드 '아티포레'도 신제품 '자이가스트 W 알렉트라'를 선보인다. 이 밖에 실버크로스, 에그, 에이블 등 젊은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은 유모차·카시트 브랜드도 대거 참여한다.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키즈 브랜드의 릴레이 팝업 행사도 열린다. '투미플래닛'은 이달 20일까지 강남점에서, '실버크로스'는 20일까지 센텀시티에서, '노리터프로젝트'는 23일까지 대구신세계에서 팝업을 진행한다.

가족 고객을 위한 여행 상품도 마련했다. 신세계백화점의 프리미엄 여행 플랫폼 '비어신세계'에서는 가족 여행객을 겨냥해 오는 10월 출항하는 '디즈니 크루즈' 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롯데, '리프트' 교육 실시

롯데가 18일부터 청년 직무아카데미인 '리프트(LIFT, Lifetime Inspiration For Tomorrow)' 교육을 시작한다.

리프트는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롯데는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유통과 호텔·서비스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롯데는 서류 심사와 온라인 면접을 거쳐 200여명의 교육생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12주간 실무 중심의 유통, 호텔·서비스 교육에 참여한다.

리프트 교육 과정은 실무 역량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직무 기초 교육, 현장 체험, 현장자 멘토링, 실전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직무별 취업 컨설팅,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도 진행한다.

또한 최근 사업 전반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잡은 AI 활용 능력을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했으며, 교육생들의 AI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 활용 실습 및 실제 업무에 적용된 사례를 소개한다. /김서현 기자

이마트 '중화요리 3980' 5종 판매

이마트가 3000원대로 즐길 수 있는 중화요리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마트는 이달 말까지 델리 코너에서 '중화요리 3980' 5종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간풍기, 유산슬, 난자완스, 마라상리, 마파두부&포테이토 등 총 5종이다. 전문점에서 즐기던 인기 중화요리를 3천원대로 부담 없이 맛볼 수 있도록 대표 메뉴들로 구성했다.

이마트는 제조사인 신세계푸드와 상품 기획 단계부터 메뉴 구성과 생산 공정을 함께 설계해 제조 효율을 높였다. 기존 신세계푸드와 함께 개발한 델리 상품 '중화요리 WITH 이금기'의 운영 노하우도 활용했다. /김서현 기자

성수 찍고 美 세포라 간다… 올리브영, 상반기 매출 3.3조

반기 만에 지난해 매출 57% 달성
2분기 매출 1.8조, 전년비 23% ↑

오프라인 매장, 뷰티 체험 고도화
모바일선 중소 브랜드 성장 지원
글로벌 소비자 접점 확장, 협업 진행

CJ올리브영이 올해 상반기 매출 3조 3000억원을 돌파하며 반기 만에 지난해 전체 매출의 57%를 달성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의 K뷰티 체험, 온라인몰의 신생 브랜드 기획 등이 성과를 내며 올리브영만의 옴니채널 경쟁력이 강화됐다.

17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올리브영의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조7777억원이다. 이중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나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1%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누적 매출은 3조3349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6961억원 대비 24% 커지며 앞 자릿수를 갈아치웠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분기 1300억원, 2분기 1352억원 등을 거둬 수익성을 유지했다.



지난 6월 올영세일 기간 ‘올리브영 센트럴 명동 타운’에서 외국인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CJ올리브영

실적 성장의 핵심은 오프라인 점포 체질 개선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 온라인 차별화다. 국내 점포 수는 지난해 2분기 1393개에서 올해 2분기 1367개로 감소한 가운데 대형 및 특화 매장 중심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인바운드 매출이 급증하면서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올리브영은 오프라인 채널을 ‘K뷰티 심화 체험 공간’으로 고도화하고 있

다. 최근 서울 성수에 문을 연 ‘올리브영 뷰티 맨션 성수’의 경우 기존 ‘올리브영N 성수점’의 시장 인착을 이어간다. 성수연무장길을 중심으로 한 K뷰티 성지 분위기를 북성수 상권까지 확산한다. 성수저택 특유의 분위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층별 공간을 ‘방’ 형태로 구성한다. 1층에서는 팝업, 숍인숍 등을 꾸며 입점 브랜드가 별도 매장 없이도 브랜드를 알릴 수 있도록 돕는다. 2~3층은 K뷰

티 다바이스 스튜디오, 피부 진단 서비스 등으로 꾸몄다.

이처럼 오프라인에서 뷰티 체험을 확장하는 동시에 올리브영 모바일 앱에는 신생·인디 브랜드 전용 구역을 신설했다. 미출시 신제품을 미리 보여주는 등 중소 브랜드의 성장을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6월 사전 운영 기간 동안 소개된 상품 매출은 직전 동기 대비 35% 급증하기도 했다.

아울러 포인트 제도 개선으로 유입된 충성 고객, 당일 배송 서비스 오일드림 주문 증가 등도 온라인 매출 상승을 뒷받침했다.

올리브영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K뷰티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자체 매장 구축과 기업과 기업간 거래(B2B) 유통망 확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한다.

우선 올해 들어 미국에서 전격 공개한 매장들로 글로벌 소비자와 접점을 늘렸다. 미국 패서디나점과 샌주리시티점을 각각 1호점과 2호점으로 선보였다. 미국 소비 사회에서 고소득층을 흡수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수한 제품력과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K뷰티 성장 기반을 프리미엄 뷰티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패서디나

점의 근처에는 애플스토어부터 티파니엔코까지 고급 브랜드들이 집약해 있다. 샌주리시티점 또한 고급 주거 지역을 정조준한 핵심 상권에 속했다.

올리브영은 올해 3분기부터는 글로벌 뷰티 편집숍 세포라와의 협업을 본격화한다.

이달 20일(현지 시간) 세포라 미국 오프라인 매장 580여 곳과 온라인몰에서 ‘올리브영 K뷰티에딧’ 운영을 시작한다. 이어 올해 안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내 세포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올리브영 K뷰티에딧’을 도입하며 오는 2027년까지 캐나다, 호주, 영국, 중동 등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뷰티 맨션과 올영신상은 글로벌 고객에게는 깊이 있는 K뷰티 경험을, 신생 브랜드에는 가시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거점”이라며 “옴니채널 큐레이션을 고도화해 K뷰티 산업 전반이 함께 성장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SK바사, RSV 백신 개발범위 영유아로 확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글로벌 소아 1b상 임상 신청서 제출
생후 2주~8개월 영아 80명에 검증

SK바이오사이언스가글로벌파트너십을 통해 차세대 감염병 예방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기존 백신은 물론, 항체 기반 예방 의약품까지 연구개발 영역을 넓히는 플랫폼을 확보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게이트재단산하 비영리 의학 연구기관 GatesMRI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항체 후보물질 ‘RSM01’의 글로벌 소아 1b상 임상시험신청서(CTA)를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약품규제청(SAHPRA)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해당 임상을 통해 생후 2주~8개월 영아 약 80명에서 RSM

01의 안전성, 체내 반응, 약동학적 특성 등을 평가한다. 영유아 대상 RSV 예방항체의 임상적 개발 가능성을 검증해 후기 임상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RSV는 영유아의 중증 하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다. 면역 체계가 미숙한 생후 초기 영아의 질병 부담이 매우 크다. 다만 생후 초기에는 백신 접종을 통한 능동면역 형성에 한계가 있어 항체를 직접 투여해 즉각적인 방어 효과(수동면역)를 제공하는 예방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임상은 성인 대상 초기 검증을 마친 RSM01의 개발 범위를 주요 예방 대상인 영아로 본격 확대하는 연구개발이기도 하다. RSM01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2월 GatesMRI와 기술이전 계약

을 체결하며 확보한 후보물질이다. Gate sMRI는 RSM01의 초기 연구와 성인 대상 임상 1a상을 진행해 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포배양독감백신과 단백질접합 폐렴구균 백신에 이어 RSV 예방항체까지 라인업을 넓히며 호흡기 질환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백신과 항체 기술을 아우르는 R&D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감염병 예방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글로벌파트너십으로 확보한 차세대 기술을 자체 R&D 역량과 결합해 한 단계 진전시킨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감염병 예방 플랫폼을 확보해 글로벌에서 경쟁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선크림으로 화장 잘 먹는 피부 만든다”

아모레퍼시픽 ‘마몽드’ 선키어 2종

선크림도 ‘화장이 잘 먹는지(화잘먹)’가 기준이 된 요즘, 마몽드가 자외선 차단에 메이크업 밀착력까지 더한 신개념 자외선 차단 제품을 선보인다.

아모레퍼시픽은 마몽드가 화잘먹 선키어 2종 ‘플로라 글로우 로즈 유브이 프로텍터’와 ‘포어 컨트롤 피어니 유브이 프로텍터’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마몽드는 선키어가 자외선 차단을 넘어 메이크업 완성도를 결정하는 단계로 인식되는 흐름에 맞춰 제품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두 제품은 마몽드의 대표 스킨케어 라인인 로즈, 피어니의 성분을 각각 담았다. ‘플로라 글로우 로즈 유브이 프로텍터’는 미세 거품 제형으로 피부에 얇게 밀착되



(왼쪽부터) 플로라 글로우 로즈 유브이 프로텍터, 포어 컨트롤 피어니 유브이 프로텍터 이미지. /아모레퍼시픽

는 점이 특징이다. 가스 없이 초경량 거품을 내는 특허 기술을 적용했다.

‘포어 컨트롤 피어니 유브이 프로텍터’는 노란기를 보정하는 효과가 있는 보랏빛 톤업 선크림이다. 징크·나이아신아마이드와 피어니 추출물을 함유해 과잉 유분 조절 및 모공 정돈 효과를 잡았다.

/김수정 수습기자

유일한 박사 철학 담은 ‘월로하우스’, 지역 문화거점으로

유한양행, ‘유한아카이브’ 새단장
포토존 조성, 전시장 크기 확장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를 담은 공간이 시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유한양행은 복합문화공간 ‘월로우하우스’ 내 ‘유한아카이브’ 전시 구역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월로우하우스는 유한양행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서울 동작구 구사육을 재단장한 복합문화공간이다. 4층 규모로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관과 카페테리아, 시민들을 위한 휴식·체험 공간 등을 갖췄다.

이번 리뉴얼은 유일한 박사의 생애와 기업 철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2층 메모리얼 홀에는 유 박사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들어섰다. 3층 비전홀은 전시장 크기를 확장하고 동선을



유한양행은 복합문화공간 ‘월로우하우스’ 내 ‘유한아카이브’ 전시 구역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유한양행 월로우하우스 전경.

효율화했다.

월로우하우스는 하루 평균 200여명이 찾고 있으며 하루 최대 443명까지 방문했다. 주말에는 전체 이용객이 1000여명에 달하는 등 지역 대표 문화 거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월로우하우스가 유



유한양행은 복합문화공간 ‘월로우하우스’ 내 ‘유한아카이브’ 전시 구역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유한양행 월로우하우스 메모리얼홀.

/유한양행

박사의 선한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느끼며 편안하게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방문객들에게 진정성 있는 브랜드 경험과 다채로운 문화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형지글로벌, 상반기 영업이익 491% 늘어

매출 315.6억, 영업이 8.8억 기록

지난해 내실 강화에 공을 들였던 형지글로벌이 올해 외형 성장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실적 반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형지글로벌은 올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 315.6억원, 영업이익 8.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187.1억원) 대비 68.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5억원) 대비 491% 늘었다.

2분기 성장세도 가팔라졌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은 233.4억원으로 전년 동기(101.3억원) 대비 13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9.6억원 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본업 자체의 성장세가 뚜렷했다. 형지글로벌의 법인 단독 상반기 매출은 191.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연결 기준 전체

매출을 웃돌았다. 형지글로벌은 자회사 형지스퀘어와 편입 효과에 핵심 브랜드 ‘까스텔바작’의 상품력 강화가 맞물려 본업 경쟁력이 개선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로드숍 중심에서 해외 거래처, 아울렛, 온라인 및 홈쇼핑 등으로 유통 경로를 다각화한 전략도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생했던 일회성 금융비용 부담이 해소되면서 이자비용도 줄었다. 영업이익 증가와 금융비용 감소가 맞물리며 순이익 개선으로 이어졌다.

형지글로벌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내실 중심의 경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판매 채널 재정비 등 외형 확대에 힘을 쏟았다”며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 재무구조 정상화가 동시에 이뤄진 만큼 하반기에도 탄아라운드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23thkepik 전력산업기술기준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2026 KEPIC-Week

Advanced Standards & Global Partner



2026. 8. 25.(화) - 8. 28.(금)
정선 하이원그랜드 호텔

전력산업계 최신 기술동향과 기술기준 적용 경험을 공유하는
국내 최대 정보교류의 장

주최 KEA 대한전기산업연합회
Korea Electrical-Industry Association

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찬 전력산업계

지원 GWT 강원관광재단



한화사이언스챌린지, 15년간 미래 과학인재 육성

한화그룹이 고교생의 창의적인 과학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 과학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화사이언스챌린지'를 15년째 이어가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1088개 팀이 참가해 연구 성과를 겨뤘다. 제15회 한화사이언스챌린지 2026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화



롯데마트, 청년농부에 친환경 비료 47톤 기부

롯데마트가 청년농부들의 친환경 농업 실천을 돕기 위해 친환경 비료인 '바이오차'를 지원하며 농가 상생 행보를 이어간다. 롯데마트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친환경 비료 바이오차 전달식'을 열고 청년농부 및 파트너사 농가 26곳에 바이오차 약 47톤을 전달했다. /롯데마트



코웨이엔텍, 영남대와 물 재이용 분야 기술 확보

코웨이의 수처리 자회사 코웨이엔텍이 영남대학교와 '역삼투(RO) 농축수 처리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물 재이용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 이번 협약은 코웨이엔텍과 영남대가 지난 2024년부터 공동으로 수행해 온 '재이용플랜트 내 농축수 처리를 위한 에너지 절약형 공정 개발' 연구 성과를 사업화 단계로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왼쪽 5번째부터)영남대 김재홍 산학연구처장, 코웨이엔텍 방윤혁 대표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GS칼텍스, 독립유공자 후손 돕는 '815런' 후원

GS칼텍스가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는 기부 마라톤에 힘을 보탰다. GS칼텍스는 지난 15일 서울 상암월드컵공원에서 열린 '2026 815런'을 후원하고 임직원과 가족 300명이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2026 815런에 참여한 GS칼텍스 임직원과 가족. /GS칼텍스



네츄럴코어, 구조견 해외 입양까지 돕는다

네츄럴코어 '글로벌 프렌즈 봉사단'이 지난 13일 유기동물 구조단체 '드림테일즈리스크 코리아'와 함께 해외 입양이 결정된 구조견의 이동 봉사에 참여했다. 사진은 수송용 케이지에서 캐나다 출국을 기다리는 구조견 '테디'. /네츄럴코어

“미래 경쟁력은 사람”... 삼성, 과학인재에 장학금 전달

국제올림피아드 메달리스트 15명 대표단 선발·대회 참가비 등도 후원

삼성 최고경영자(CEO)들이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메달리스트 15명에게 직접 장학금을 건넸다. 반도체·바이오 경쟁의 승부가 결국 기초과학 인재 확보에 달렸다는 판단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1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7월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학·물리·생물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 15명과 학부모를 사업장에 초청해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수여식은 세 차례로 나뉘어 열렸다.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사장)은 이날 11일 수원캠퍼스에서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수상자 6명(금 3은 2·장려 1)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은 13일 화성캠퍼스에서 국제물리올림피아드(IPhO) 수상자 5명에게,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14일 송도 사옥에서 국제생물올림피아드(IBO) 수상자 4명에게 각각 장학금을 줬다.

올해 성적표는 예년보다 두드러졌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왼쪽 세 번째)과 박시중 대한수학회장(오른쪽 세 번째) 등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삼성전자 수원캠퍼스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올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왼쪽 네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다. 물리는 대표 5명 전원이 금메달을 수상했으며 이 가운데 오주하 학생이 참가자 종합 1위에 올랐다. 생물 역시 4명 전원 금메달로 2019년 헝가리 대회 이후 7년 만이다. 수학에서도 이현준(서울과학고 3) 학생이 42점 만점으로 개인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수학 종합 순위는 6위였다.

삼성의 지원은 장학금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한국과학창의재단·대한수학회·한국물리학회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1월 한국생물교육학회와 각각 후원 협약을 맺었다. 후원금은 대표단 선발·교육·대회 참가비용으

로 쓰이며 수상자 장학금은 이와 별도로.

기술·소프트웨어(SW) 분야도 마찬가지다. 2007년부터 국제기능올림픽을 후원하며 고졸 기술인재를 특별 채용해 왔고 2018년 출범한 삼성청년SW·AI아카데미(SSAFY)는 수료생 1만1000여명을 배출했다. 누적 취업률은 85%다. 올해부터는 연간 교육시간의 60%를 인공지능(AI) 과정에 배정했다.

이 같은 투자의 배경에는 반도체 업계의 인력난이 자리한다. 한국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인력은 2031년 30만4000명까지 늘지만 한

재 추세대로면 최대8만1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의 4대 과학기술원 진학자는 2023년 876명에서 2025년 782명까지 줄었다가 올해 844명으로 반등했다.

삼성 관계자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재제일 경영철학에 따라 국내 이공계 인재 육성 노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기보, 인천 미래전략산업에 금융지원

인천시·하나銀과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이 인천광역시, 하나은행과 지역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나선다.

17일 기보에 따르면 인천시, 하나는 행과 'ABC+E 미래성장엔진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총 25억원을 재원으로 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기보는 ▲보증비용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3%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보는 하나은행의 보증료지원금 총 12억원을 기반으로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며, 하나는행은 보증료(0.6%p,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가운데 본점, 주사업장 또는 공장이 인천시에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이고,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콘텐츠(Co



지난 14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기보 박주선 전무, 인천시 송현석 정책수석, 하나은행 이호성 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ntents&Culture) ▲에너지(Energy)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책·금융지원 역량을 연계해 인천지역의 유망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보 박주선 전무는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기술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iM뱅크, 2026년 신입행원 공개 채용

29일까지 서류전형 접수

iM뱅크가 2026년 '신입행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은 일반전형·지역전형·전문전형 등 세 부문에서 동시 진행된다.

17일 iM뱅크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행원 서류전형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채용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지역▲전문 등 세 가지 전형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이번 공개 채용은 학력과 전공 등 지원 자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직무능력에 기반한 블라인드 공정 채용

으로 진행된다.

일반전형은 지역 구분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지역전형은 대구·경북권 인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문전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인재를 대상으로 서류를 접수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AI역량평가 포함), 필기전형, 1차 면접,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10월 중으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또한 지원자의 역량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한 AI역량평가를 실시하며 은행의 기업문화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문화적 적합성 평가도 진행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구분옥 KB손해보험 사장(첫째줄 왼쪽 다섯번째)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에 참석한 임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손해보험

KB손보,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 도입

‘공정거래 위험성 평가 체계’ 고도화

KB손해보험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손해보험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준법 시스템이다.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법규 준수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KB손해보험은 이번 CP 선포식을 계기로 공정거래 리스크의 사전 예방을 위한 ‘공정거래 위험성 평가 체계’도 함께 고도화한다. 보험약관 및 표시광고의 불공정성 사전 검증, 대리점 수수료 관리의 공정성 확보, IT 및 손해사정 외주 용역에서의 하도급법 준수 등 고위험 영역을 세분화해 리스크 식별 및 상시 모니터링에 대한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2026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2026년 8월 31일 ~ 2027년 3월 04일



모집 개요

과정명: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교육기간: 2026년 8월 31일 ~ 2027년 3월 04일
교육시간: 월~금, 09:00 ~ 18:00
교육장소: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교육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메타빌드 제2사옥 4층
상담 문의: 010-5155-8299

지원 자격 및 혜택

학력·전공 무관! 비전공자 및 인문계열도 기초부터 입문 가능
우대 사항: Python, Java 등 프로그래밍 기초 수강생 우대
추천 대상: IT/빅데이터/AI/ITS/데이터엔지니어 직무 취업 희망자
교육비 혜택: 총 수강료 40만원(훈련장려금 매달 수령 가능)

주요 교육 내용

총 1,000시간 중심의 실무 및 프로젝트 교육

AI 서비스 연계기술(ESB/API/MCP/A2A), Node.js/Express 기반 웹 응용
Python/JAVA/바이트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RESTful API 설계
React 기반 프론트엔드 개발, 데이터베이스 및 GIS 기반 데이터 처리
생성형 AI·GPT·LLM 실무 교육, 디지털트윈 서비스 구현 등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메타빌드 AI-클라우드-데이터 연계플랫폼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산대특 4기 - 홈페이지 신청 (QR코드 연계)



수업과정
상세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누구를 위한 마지막 문장인가



서 선 미 역
기후에세이

뛰어난 첫 문장이 있다. “역사가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는 이 문장으로 시작한다. 마지막 장을 덮으면 이 문장은 이렇게 읽힌다. “우리는 우리를 저버린 역사를 관통해 끝 끝내 살아남았다. 삶을 버텨낸 것은 역사를 만든 거창한 인물들이 아니라 낱알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민주당 지도부 선거로 정치의 장이 뜨겁다. 선명한 의제로 시대의 리더임을 알려 뜨거운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하하고 공격하는 그 자극적인 뜨거움이다. 당혹스럽다. 날카로운 말들은 상대 후보를 겨누고 있지만 정작 상처받는 이는 유권자인 국민이다. 혐오의 시대가 또 다른 혐오를 부르고 있다.

혐오의 연쇄 시대이다. 혐오를 견어내야 할 리더들의 장인 정당도 예외는 아니다. 혐오의 커튼이 여당과 야당이 자리한 국회의 모든 창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다. 정치가 보여주는 혐오는 『파친코』의 첫 문장에서 역사가 그러했듯이 우리를 저버리고 있다. “상관없다”고 말하며 내 삶을 살아가려 오

이 애써보지만, 그 삶마저 그들이 그어놓은 역사의 확들에 의해 뭉개지거나 지워지기도 한다.

그들 말의 본질은 날카롭지 않다. 고작해야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언어일 뿐이다. 그런데 그들은 본론인 말꼬리 잡기 싸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같이 의제를 던지며, 자신이 이를 이끌 리더라고 주장한다. 미래 의제는 혐오와 비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프롤로그다. 저출생과 인공지능(AI)시대, 그리고 기후 위기가 그들의 첫 문장에 오르고 있다. 이 시대 리더가 되겠다는 이들이 제시한 ‘해결 과제 목록’에 기후 위기는 빠지지 않는다. 누구나 기후 위기를 말하는 시대다.

최근 한 언론은 22대 국회의원들이 등록한 자신 명의 차량 221대 중 214대가 내연기관차라고 보도했다. 무공해 차량은 3.2%에 불과했다.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중 차량이 확인된 10명 역시 모두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었다. 그들에게 기후 위기는 단순히 자신을 좋게 포장하는 라벨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선자가 가방을 집어 들었다. 경희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소설 『파친코』의 마지막 문장이다. 선자가 일본 경찰에 의해 생사를 달린 남편 묘소를 떠나 당도할 곳은 경희와 함께 살아가는 집이다. 경희는 선자가 오사카로 건너 온 이후 온 생을 함께

한 동반자다. 그이와의 우정, 연대가 없었다면 선자는 그 가혹한 삶을 지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역사는 선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지만, 사랑과 우정이 있어 강인한 회복력으로 역사를 관통했다. 이처럼 낱알의 사람들이 써 내려간 마지막 문장은 여전히 품격 있게 자신에게로 향한다. 온 생애가 그랬듯 묵묵히 일어나 집으로 향한다.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는다. 역사는 거대한 톱니바퀴 앞에서 개인들은 힘을 다해 살아내고 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고통이 몇 겹으로 포개어진 일상을 감싸안으며 긴 호흡을 내쉴다.

누가 뽑히든 우리는 살아낼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역사를 앞장서 만들어가는 리더를 자처한다면 품격 있는 정치의 문장을 엮어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으로 첫발을 디뎠을 때 그들의 첫 문장은 웅대하고 정의로웠지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반쯤 거짓이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문장이다. 그들은 그 문장을 향해 펜을 들고 있다. 그 마지막 문장은 지켜내지 못한 언어들에 대한 참회록이자, 미처 해결하지 못한 당면 과제들을 담은 성찰이어야 한다. 기후 위기가 거기 있어야 한다. 최소한 지금까지 서슬 퍼르고 자가당착에 빠진 문장이 아니길 바란다. /서선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카드사 호실적이 개운치 않은 이유



기지 수첩

안 재 선
(금융부)

“이제 비용도 어디서 더 줄여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내 7개 주요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카드)의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총 1조2531억원이다. 전년 동기(1조1577억원)보다 8.2% 증가했다. 카드사들의 순익 증가를 묻는 말에 한 업계 관계자는 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지표만 봐도 카드사들의 비용 감소가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신한카드의 상반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전년 동기(5097억원)에서 올해 4721억원으로 7.4% 감소했다. KB국민

카드도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이 같은 기간 4188억원에서 3936억원으로 6.0% 줄었다.

중소형 카드사도 다르지 않다. 롯데카드는 영업비용을 전년 동기 대비 4.5% 감축했다. 하나카드는 상반기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이 전년 동기(1785억원) 대비 약 85억원(4.8%) 줄여 비용을 덜어냈다. 우리카드 대손비용도 전년 대비 98억원 줄었다.

연체율이 소폭 개선세를 보이며 리스크 관리 능력을 입증한 측면은 분명 긍정적이다. 다만, 영업수익 증가 폭이 비용 감축 폭을 앞지른 곳은 거의 없다.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 구조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 비용을 아끼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반기 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까지 오르면 비용 줄이기로 순익을 방어할 수 있는 기간은 더 짧아진다. 순이익이 증가해도 카드사들이 축적 분위기를 잃

는 이유다.

비용 절감이 한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 카드 산업은 성장 동력을 잃고, 잠재 부실 위험에 빠지게 된다. 해자카드를 단종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고객 이탈 가능성이 확대된다. 충당금을 덜 쌓으며 버티다가 경기 악화 등으로 연체가 급증할 경우에는 잠재된 부실을 받아낼 완충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본업 경쟁력의 정체를 무겁게 직시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각종 규제를 거둬내고 카드사들이 장기적으로 순익을 낼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카드사는 반짝 실적에 안주하기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빅테크 공세 속에서 카드업의 존립 기반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wotjs4187@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8일 (음 7월 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잠시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60년생 재능을 알아줄 사람을 만납니다. 72년생 운이 잘 풀리는 하루입니다. 84년생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자주 배워야 합니다.



49년생 금전운 이성운, 모두 조심하세요. 61년생 순탄한 하루입니다. 73년생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세요. 85년생 종교를 믿으면 좋을 듯. 믿음은 간직하도록 하세요.



50년생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 62년생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 이룰 수 있습니다. 74년생 잊사름을 말을 잘 따르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86년생 대체로 무난한 평온한 하루입니다.



51년생 긍정적인 생각이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63년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75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되도록 피하세요. 87년생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52년생 기본전환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64년생 사업은 손해 볼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세요. 76년생 먼저 사과하면 더욱 좋습니다. 88년생 큰 성과가 있으니 집중력을 갖고 노력하세요.



53년생 뜻하지 않은 조짐이 있으나 자리잡는 과정입니다. 65년생 주변 움직임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세요. 77년생 바쁘게 움직이나 소독은 없습니다. 89년생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54년생 얹지른 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66년생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78년생 상사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90년생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좋습니다



55년생 피하지 말고 정면승부가 필요합니다. 67년생 행동보다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79년생 밝고 따뜻한 색과 함께 하면 행운이 있습니다. 91년생 금전운이 좋습니다.



56년생 당장은 힘이 들더라도 어려운 쪽을 선택하세요. 68년생 아랫사람보다 뒷사람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80년생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92년생 겸손해야 안 좋은 일을 면합니다.



57년생 모나지 않게 행동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69년생 일은 많은데 손은 부족합니다. 81년생 한가지 일에만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93년생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관계가 좋습니다.



58년생 일관되게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70년생 상황은 좋지 않지만 주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82년생 주변 사람이 잘 도와주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94년생 이동수가 있습니다.



59년생 빠른 결정보다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71년생 많은 변화 속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83년생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95년생 일보다는 마음 편히 쉬는 게 좋습니다.



김상회의四季 늘 새로운 백중

필자는 8월에는 백중 회향일이 되는 음력 7월 보름이 돌아오기에 첫 일요일 법회와 백중 회향법회가 함께 열리는 달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한국의 불자들은 대부분 천년 고찰을 포함하여 여러 절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라 월광사의 법회 시스템을 이해하고 잘 따라주신다. 올병오년 백중재를 회향하면서 상황이 되는 신도들은 꼭 칠재일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의 편안한 시간에 와서, 또는 집에서라도 일주일에 한 편씩 지장경이나 아미타경 또는 금강경을 읽을 것을 신도들에게 당부하였다. 지장경의 경우, 워낙 길이가 길므로 하루에 두 편 정도씩 나누어서 읽는다면 일주일에 한 편은 무리 없이 독송할 수 있다. 금강경이나 아미타경은 상대적으로 길이가 좀 짧으니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한 편 또는 세편 정도 읽어도 무방하리라.

해마다 매년 돌아오는 백중이지만 늘 새롭다. 사람들은 묻는다. 무슨 천도재를 그렇게 매년마다 지내요? 라며. 중생들은 각기 없이 다르다. 49일 동안의 중음이 끝나고 육도윤회에 접어들기도 하지만 혹여 육도 중 악처에 속하는 4악처에 떨어진 인연 영가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말씀하셨듯 다시 사람 몸을 받을 확률은 저 대지의 흙보다도 작은 손톱 위의 흠만큼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마음이 미칠 때마다는 못할지언정 1년에 한 번 지옥문이 열린다는 백중일에 조상 및 인연 영가들의 천도를 발원하는 것은 후손의 당연한 도리이다. 재를 올리는功德의 칠본의 일은 선망 조상님들께 나머지 7분의 6은 재를 올리는 후손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이니 굳이 지장경 ‘이익존팔품’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세운 발원이나 서원만큼 실천하면 좋은 일이다. 비록 친족연속이 아닐지라도 모든 유주무주 고혼의 천도를 기원하는 것은 복된 일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7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7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할일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판

결란스도쿠110

종이스도쿠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퍼즐재미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8	1	6	9	7	2	2
6	2	9	2	8	7	9	1	8
2	1	7	8	2	9	9	8	6
8	9	2	7	1	8	2	6	9
2	7	6	9	9	2	1	8	8
8	9	1	6	8	2	2	7	9
7	6	9	2	9	8	8	2	1
9	2	8	8	7	1	6	9	2
1	8	2	9	2	6	8	9	7

8	1	9	7	2	2	8	6	9
2	6	9	9	8	1	7	8	2
8	2	7	6	8	1	2	9	
7	8	8	2	2	9	9	1	6
9	9	6	1	8	7	2	2	8
1	2	2	9	6	8	9	7	8
2	9	2	8	7	6	8	9	1
6	7	1	8	9	2	8	2	
9	8	8	2	1	2	6	9	7

상도동 214번지… 29층·1840세대 주거단지 ‘탈바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확정

용도지역 상향해 사업성 개선
국사봉 있는 공원·보행축 조성
양녕로 확폭·교통체계 전면 손질
9월 정비계획 입안 절차 착수

급경사와 협소한 골목길, 높은 반지하 비율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던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4번지 일대가 최고 29층, 약 184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공원·보행축과 교통체계를 함께 손보는 내용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도동 214 일대는 국사봉 자락에 위치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비율이 높고, 급경사와 협소한 골목길, 높은 반지하 비율 등으로 재개발 위험과 교통 불편이 이어져 온 지역이다. 2015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지만 소규모



상도동 214 일대 신속통합기획 부지 조감도.

/뉴시스

모 골목길 개선만으로는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주변 개발 여건과 사업성을 고려해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1종

및 제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고 29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대상지의 약 67%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었

던 만큼 이번 용도지역 상향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국사봉과 상도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경관도 함께 정비한다. 국사봉과 공원으로 이어지는 3개 통경축을 확보해 열린 경관을 조성하고, 급경사와 웅벽이 있는 공원변에는 건축물을 이격하고 계단식 화계를 설치해 구조적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녕로에서 상도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녹도도 새로 조성된다. 기존 공원 둘레길과 동작충효길을 단지와 연결해 보행 접근성을 높이고, 북서측 평지에는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신설한다.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데크 하부에는 돌봄센터와 시니어클럽,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한다. 서측 생활가로 변에는 연도형 상가를 조성해 단지 인파의 생활권을 연결한다.

교통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일방통행으

로 운영되는 북측 양녕로26나길은 도로 폭을 넓혀 양방향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호교차로를 도입한다. 사고 위험이 컸던 양녕로와 국사봉터널 진출로 접속부는 진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단지 내부를 통과하던 도로로는 신상도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를 잇는 보행로로 바꾼다. 대신 서측 경계부에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마을버스 정류장을 배치해 대중교통 접근성과 통학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상도동 214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전체 311개 대상지 가운데 195곳의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도동 214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정비계획안 입안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후 정비계획 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과학고 역대최대 선발… 경기 모집 3배 확대

경기 과고 100명→300명 3배 확대 부천·분당중앙과고 100명씩 선발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과학고 입시에서 전국 22개교가 1858명을 선발한다. 부천과고와 분당중앙과고가 새로 문을 열면서 선발 인원이 전년보다 216명(13.2%) 늘어 1983년 국내 첫 과학고 개교 이후 최대 규모가 됐다. 특히 경기지역 과학고 선발 인원이 기존 100명에서 300명으로 3배로 늘어나면서 수도권 중학생들의 과고 지원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22개 과학고의 정원 내 모집인원은 총 1858명이다. 지난해 20개교 1642명보다 학교는 2곳, 모집인원은 216명 증가했다.

과학고 선발 인원은 2013학년도 19개교 1606명에서 2014학년도 20개교 1708명으로 늘어난 이후 1600명대를 유지해왔다. 올해 1858명으로 늘면서 종전 최대였던 2014학년도보다 150명 웃돌게 됐다.

올해 선발 확대는 경기지역 과학고 2곳의 신설 영향이 크다. 지난해까지 경기지역 과학고는 경기북과고 한 곳으로 100명을 선발했지만 올해 부천과고와 분당중앙과고가 각각 100명을 선발하면서 3개교 300명 체제가 된다. 전국 증가 인원 216명 가운데 200명(92.6%)이 경기지역에서 늘어나는 셈이다.

전북과고도 익산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모집인원을 기존 80명에서 96명으로 16명 늘렸다.

신설 과고에는 해당 지역 학생을 위한

별도 선발도 도입된다. 부천과고는 전체 100명 가운데 일반전형 80명, 사회통합전형 20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 80명 가운데 최대 20명은 부천지역 학생을 별도로 선발한다. 분당중앙과고 역시 일반전형 80명과 사회통합전형 20명을 모집하며 일반전형에서 성남지역 학생을 최대 20명까지 별도 선발한다.

경기지역 과학고 확대는 앞으로도 이어진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9학년도에는 시흥과고,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진학하는 2030학년도에는 이천과고 개교가 예정돼 있다.

최근 이공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과고·영재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현진 기자

인천 스타트업 빅테크 업고 해외시장 공략

글로벌 5개사 기술·경영 역량 연계
쉐코 대만 등 3개국 납품·협업 성과

인천광역시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개하고 있는 ‘I-스타트업 유니콘 드림 사업’ 참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I-스타트업 유니콘 드림 사업’은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웹서비스·IBM·지멘스·엔시스 등 5대 글로벌 빅테크의 기술·경영 역량을 인천 스타트업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기업별 맞춤형 기술지원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글로벌 사업화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인천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및 계약 등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해양방제로봇 기업 쉐코는 지멘스와의 협업을 통해 대만 등 3개국에 납품완료 및 협력이 이루어졌고, 미국 1만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연을 준비 중이며, 사우디아

라비아 아랍코 벤더 등록 후 후속 파이프라인도 형성했다. 지멘스 기반 인공지능 설계 체계를 활용해 국가별 대응 속도를 높였고,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 검증을 통해 해외 시연에 따른 리스크와 비용을 줄였다.

스마트팜·수목관리 기업 그리너랩은 아마존웹서비스 기술을 활용해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운영 기반을 고도화했다. 아마존웹서비스 기반 기술을 통해 현지 상주 인력 없이 해외 현장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이제메이커를 활용한 지속 학습 체계를 구축해 커피팻트 시장에 진출했다. 케냐 내 사업대상 농장을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는 안전솔루션 기업 아이캡틴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마이크로소프트의 SaaS 기술을 학교 현장에 적용해 안전 대피와 훈련, 시설·학생 관리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관련 특허 1건을 출원 중이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서울 학생 농촌유학 장기화… 10명 중 9명 연장

2학기 참여 569명 중 521명 연장
지원기간 6개월서 최대 1년 확대

서울 학생들의 농촌유학이 ‘한 학기 체험’에서 장기 체류 형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올해 2학기 농촌유학에 참여하는 서울 학생 569명 가운데 521명이 기존 유학 생활을 이어가는 연장 참여자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지원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 가운데 전체 참여자의 92%가 연장을 선택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에는 서울 학생 569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신규 참여자는 48명(8%), 연장 참여자는 521명(92%)이다.



지난해 11월 28일 제주 농촌유학 운영학교인 성음초에서 열린 ‘벨롱벨롱 꿈자랑 발표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지역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과 마을, 학교 안에서 계절의 변화와 제철 먹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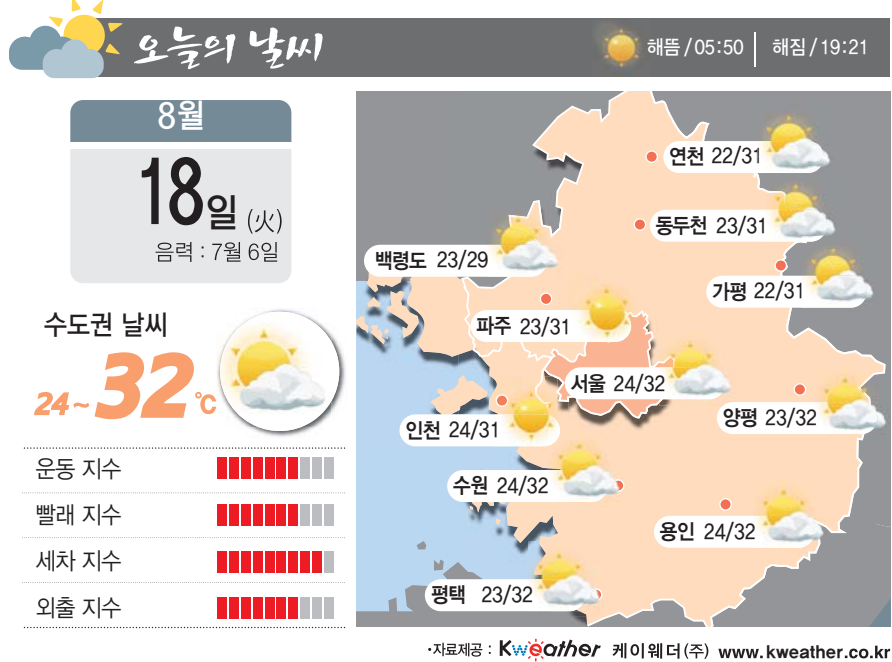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전남·전북·강원·제주·인천 등 5개 지역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농촌유학 지원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한 학기를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지원기간 확대에 따라 학생들이 같은 농촌학교에서 학업과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231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 124명, 전북 109명, 제주 105명 순이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현진 기자



▲日, 10년물 국채금리 한때 2.93%… 30년 만에 최고치
▲시진핑 “장쩌민, ‘대만 독립’ 강력 반대… 전략적 사고 배워야”

/사진 뉴시스

▲중간선거 3개월 앞… 美유권자 과반 “트럼프 2기서 살림 악화”
▲이스라엘의 미가자평화안 거부에 이집트 등 8개국 비난 공동성명

▲미·이란 ‘60일 핵협상’ 사실상 무산… 호르무즈 놓고 힘겨루기
▲인도네시아 7.7 강진으로 사망자 53명으로 늘어



면세점 4사
2분기 흑자행진
구조조정 통했다
L1

metro®

Life

CJ올리브영
상반기 매출
3조3000억 돌파
L2



46년간 이어온 생명 존중... '지속가능한 상생' 보폭 넓힌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한미약품그룹

한미약품그룹은 '인간 존중'과 '가치 창조'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제약 기업의 본업 경쟁력과 전문성을 살려 취약계층의 일상 건강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 사회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따뜻한 나눔의 온정을 확산한다.

◆ 생명을 나눈 사랑의 헌혈

한미약품그룹 사회공헌의 첫 번째 축은 '생명존중'이다. 주변에서 소외된 이웃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지원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 그 결실이 바로 1980년부터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져 온 국내 제약 업계 최장기 공익 캠페인 사랑의 헌혈이다. 올해는 2026년 헌혈자의 날 기념식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 적십자사 표창도 수상했다. 이 기념식은 보건 복지부가 주최하고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익 행사다.

국내 제약업계 최장 헌혈 캠페인 '한·라·봉 프로그램' 등 봉사활동 미래세대 건강한 성장·자립 지원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회장이 1980년 11월 서울 시청역 헌혈의 집 개소에 직접 참여한 것을 계기로 시작한 이 캠페인은 그룹이 추구하는 나눔을 상징한다. 또 지난 46년간 계속된 국내 제약 업계 최장 기록이다. 2025년 기준, 누적 참여 인원은 1만 1857명, 누적 헌혈량은 총 379만cc에 달한다.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헌혈 증서를 기부하기도 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모인 6247매의 헌혈증서는 한국혈액암협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등에 전달됐고 긴급 수혈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였다.



한미약품그룹 임직원이 상반기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 임직원이 함께하는 맞춤형 봉사

두 번째 축인 '상생'을 위해서는 연중 상시 다양한 이웃과 소통하는 참여형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긴밀히 협력한다. 한미가족의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봉사를 뜻하는 한·라·봉 프로그램의 경우, 2025년 기준 누적 참여 임직원은 4922명, 누적 봉사 시간은 1만 4851시간을 달성했다.

신규 캠페인 한미 헬스앤호프도 운영하고 있다. 신입 공채 교육생들이 입사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 연례 행사로 정착시킨 것이 특징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직접 체득하는 구조다.

상반기에는 국내 영업본부 공채 교육생 40명이 성장기 균형 있는 식습관을 돕기 위한 건강 도시락 60세트를 만들었다. 고단백 샌드위치와 저당 마들렌을 준비했고 서울 강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명진들꽃사랑마을'의 아이들에게 공유했다.

하반기에도 한미약품 지속성장부문 공채 교육생 36명이 베이킹 전문가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레시피 실습을 통해 건강 도시락을 제작했다. 도시락 42세트와 생과일 꽃 케이크 11개는 서울 강동 소재 아동보육시설 '강동꿈마을'에 전해졌다.

◆ 미래 세대를 향한 약속

한미약품그룹은 대표 브랜드인 텐텐, 완전두유 등을 매개체로 미래 세대를 향한 응원도

펼친다.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물론, 안전망을 구축하고 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하반기 열리는 '제8회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전국대회'를 후원했다. 이 대회는 청음복지관이 주관하는 경연으로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발굴, 취업, 사회 진출 등에 중점을 둔다.

9월에는 예선이, 10월에는 본선이 각각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신한 메뉴 개발을 주제로 한 '완전두유 창의상'을 신설했다. 참가자들은 식물성 음료 제품인 완전두유 더진한국 산공 무가당'을 공식 재료로 활용해 건강 메뉴를 선보이면 된다. 커피를 비롯해 카페 업계 최신 흐름을 반영해 장애인 바리스타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기업 경쟁력·전문성 적극 활용 수요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 의료 접근성 개선 등 지역사회 기여

실제로 이미 한미약품그룹 내에는 사내 카페 '이텔 가든'에서 장애인 바리스타 6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장애인 재할 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고용 시스템을 마련했다.

한편, 어린이 브랜드 텐텐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텐텐



지난 6월 서울 강서 소재 스카리아트홀에서 열린 '2026년 헌혈자의 날 기념식'에서 한미사이언스 심병화 경영관리본부 부사장(오른쪽)이 표창 수여를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제품 상단에 경찰청 '안전드림 앱'에 연결되는 QR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보호자가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앱에 등록해 아동 실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강동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실종 아동의 신속한 신원 확인 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환경 보호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환경의 달을 맞아 임직원 초등 자녀 30여 명이 텐텐과 함께하는 종비의 변신 대작전에 참여했다. 어린이 멀티비타민 음료 텐텐 비타튼을 분리 배출하며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하는 등 자원 순환의 개념을 배웠다.

또 임직원들은 '완전두유 어게인'을 통해 수거한 종이팩을 지역 주민센터에서 종량제 봉투와 후지로 교환하는 등 지자체 환경 사업에 실질적으로 동참했다.

한미약품그룹은 제약 기업 정체성을 공고히 해 건강·복지·환경의 통합 가치를 건강 증진, 생활 위생 개선, 친환경 등으로 보다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임직원이 중심이 된 봉사활동을 사내 문화로 뿌리 깊게 내재화하는 동시에 투명한 기부 플랫폼 및 집행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우리 사회 가장 필요한 곳에 도움이 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지난 7월 경기 양평 블루비스타 호텔에서 한미약품 지속성장부문 공채 교육생들이 '건강 도시락 만들기'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직원 자원 순환 캠페인 '완전두유 어게인'

/한미약품그룹

메트로 한줄뉴스



▲ '축구 스타' 호날두, 은퇴 가능성 언급... "선수로서 마지막 시즌"
/사진 뉴시스
▲ 선두 KT-3위 LG, 운명 가른 4연전 이후 한 달 만에 재격돌

▲ '4번 타자' 이정후, 2경기 연속 안타... 시즌 타율 0.292
▲ 아스널, 맨시티와 커뮤니티실드서 3-0 완승... 3년 만에 우승

▲ 이동국 품은 포엣 감독, 임시 사령탑으로 태극전사 이끌까
▲ 김시우, PGA PO 1차전 준우승... 임성재·김주형과 함께 2차전 진출